第12回서울特別市議會(定期會)　文化敎育委員會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4年12月6日(火) 午前10時
場所　文化敎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1995年度文化觀光局所管(文化藝術振興基金包含)및敎育廳轉出金서울特別市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
2. 1995年度世宗文化會館所管서울特別市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
3.　1994年度서울特別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4. 1995年度서울特別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審査된案件

1.　1995年度文化觀光局所管(文化藝術振興基金包含)및敎育廳轉出金서울特別市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 ... 3面
2.　1995年度文化觀光局所管(文化藝術振興基金包含)및敎育廳轉出金서울特別市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對한修正動議案(孫馥 議員 發議) ... 54面
3. 1995年度世宗文化會館所管서울特別市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 ... 56面
4. 1995年度世宗文化會館所管서울特別市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對한修正動議案(崔沆洛 議員 發議) ... 66面

5. 1994年度서울特別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 67面
6. 1995年度서울特別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 69面
7. 1995年度서울特別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對한修正動議案(朴善童 議員 發議) ... 88面

(10時 10分 開議)

○委員長 李喆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2回 서울特別市議會 定期會 第2次 文化敎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연일 계속되는 豫算審査에 委員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公報官, 公務員敎育院, 市立大學校의 豫算審査에 이어서 오늘은 文化觀光局, 世宗文化會館 및 敎育廳 所管豫算에 대해서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民族은 敎育을 重視하고 文化藝術을 사랑하는 文化民族으로서 世界에 자랑할만한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定都600年을 맞이하는 서울은 바야흐로 고도의 無限競爭의 時代의 파고 속에 돌입하고 또한 無限競爭時代의 물결은 서울의 世界化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우리의 우수한 傳統文化를 繼承 暢達하고 世界化 趨勢에 앞장서가는 敎育行政을 遂行하기 위한 막중한 所任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財源으로 중차대한 業務를 遂行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豫算編成, 不要不急한 事業施行 等 浪費的 요소는 없는지, 事業의 優先順位 問題는 없는지를 살펴서 알뜰하고 내실있는 豫算審査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5年度文化觀光局所管(文化藝術振興基金包含)및敎育廳轉出金서울特別市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

(10時 13分)

○委員長 李喆鎬; 議事日程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1995年度 文化觀光局所管 및 敎育廳轉出金에 對한 서울特別市 一般會計 歲入·歲出 豫算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豫算에 대해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95會計年度 豫算案에 관해서 提案說明 올리겠습니다.

.....

(報告)

1995년도문화관광국소관및교육청전출금에대한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長虎; 지금부터 1995年度 서울特別市 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中 文化觀光局所管事項 文化藝術振興基金 및 敎育廳轉出金에 대하여 檢討報告드리겠습니다.

.....

(報告)

1995年度文化觀光局所管및敎育廳轉出金에對한서울特別市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

(뒤에 실음)

……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원만한 審査進行과 執行部의 충실한 答辯準備를 위해서 一括質疑 後 잠시 停會한 다음 一括答辯을 듣는 순서로 審査를 進行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一括質疑 後 잠시 停會한 다음 一括答辯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 本 件에 대해서 먼저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寅東 委員님, 質問해 주세요.

○金寅東 委員; 來年度 事業에 있어서는 그 동안 光復50周年事業으로 인해서 상당히 아마 增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600年事業 進行을 할 때에 事業本部를 設置해서 運營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번 보니까 光復50周年 事業本部를 設置해서 運營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機構나 組織은 어떤 식으로 運營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光復事業, 光復事業 하면 이것이 우리가 外國과 다른 것이 問題입니다. 地方政府의 役割이라고 하는 것은 中央의 全國的인 規模의 事業을 하는 것은 中央意思에 따라서 地方쪽 具現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光復50周年事業, 이것이 中央政府와의 役割分擔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中央政府가 어떻게 指導를 했는지, 아니면 서울市 자체에서 이 問題를 이렇게 意

慾的으로 推進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中央에서 할 일도 서울市에서 이번 光復50周年事業에 너무 많이 망라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國家的인 行事는 國家의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國庫補助金 받는다든지 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地方的인 行事는 地方的인 行事대로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예컨대 3·1運動 萬歲現場을 再現하는 파고다公園行事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어떤 새로운 民族精氣를 高揚시킨다고 하는 뜻에서 光復50周年 紀念行事를 事業으로 한다 하면 國家의 支援을 듬뿍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問題에 있어서도 우리가 분명히 役割分擔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망라를 해서 지금 文書上으로 보면 한 20個 事業이라고 그러고, 또 죽 세어 보면 14個 事業이 되고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데 이번 光復50周年事業에 대한 전체 事業內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個 事業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構成으로 봐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說明해 주셔야 충분히 檢討가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植民地 遺産 淸算 및 發展相硏究라고 하는 이런 問題를 과연 서울市에서 할 問題인가. 이것은 우리 歷史學者들도 있고, 또 中央政府에 그런 機構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서울市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單獨 硏究支援으로 해서 10편을 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 委囑이라든지 方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光復50周年 역사현장극이라고 해서 巡廻公演을 한다고 하는데 어린이大公園이라든지, 보라매公園이라든지, 올림픽公園에서 하는데 이것이 과연 現場性이 있는 것인가, 또 더

군다나 歷史性이 있는 것인가, 사실 그것 疑問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問題들을 전부 分析을 해 보면 과연 지난번 定都600年行事때에 우리 文化敎育委員會의 여러 委員들이 질타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나열식이고 또 좌판 벌리기식 어떤 行事 爲主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적이 위험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國際化, 世界化되고 있는 판국에 豫算도 좀 우리가 市民 편에 서서 市民의 의사가 진실로 反映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런 問題들이 있었고,

또 獨立公園大祝祭를 연, 그것이 西大門刑務所였어요. 刑務所 자리입니다. 거기에 愛國志士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雜犯들이고 그런 데인데, 사실 獨立公園 造成하는 問題에 있어서도 그 때 여러 가지 異論이 있었어요. 사실 獨立運動家도 犧牲된 것이 있긴 있지만 雜犯數가 더 많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獨立先烈들의 뜻을 받들어서 獨立公園을 그 때 만든 것인데, 또 서울市의 장래 都市計劃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다시 아파트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차지해 가지고 獨立公園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 複合的인 意義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獨立公園大祝祭에 이렇게 2億 5,000萬원씩 들여서 이 行事를 해야 옳은 것인가, 또 거기에서 어떤 行事를 할 것인가, 이런 問題들도 상당히 問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현장극 같은 것들도 다시 한번 檢討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번에 國庫補助가 정확하게 얼마큼 示達이 됐고, 또 行事는 어떻게 推進하라고 하는 方針이

있었는가 하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또 質問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 豫算에 대해서 몇 가지 또 물어보겠어요. 다른 委員님들도 말씀하실 것이 많으니까.

市立美術館 所藏品 購入에서 800萬원짜리 30點을 購入을 하는데 도대체 800萬원짜리라면 얼마만한 크기의 것을 어떻게 購入하겠다는 것입니까? 質을 보세요. 이것은 서울의 文化가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비싸더라도 作品다운 것을 해야지 800萬원짜리 몇 號짜리 하겠다는 거예요. 有名한 作家 같으면 1號짜리나 될까.

그리고 美術 所藏品 30點이라는 것은 회화부분이냐, 아니면 조각이냐. 그리고 이런 것을 어떻게 購入을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市立博物館의 建立에서 연차별 投資計劃을 보면 지금 이대로 推進돼서 建立目標 年度에 完工이 될 것인가 적이 걱정이 됩니다. 이것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소 不合理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古宮 周邊 整備를 宗廟에서 宗廟 東側으로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道路幅이 4m 내지 6m, 그리고 길이가 455m인데, 물론 額數도 補償費만 해도 34億원이나 되고 너무 커서 今年에 20億원을 反映하는 모양인데 이것 어떻습니까? 이것을 우리 本廳 事業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당연히 20m이하의 道路幅은 區廳 負擔이고, 또 종로구청은 自立度에 있어서 다른 區보다도 좀 나은 형편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本廳에서 擔當해서 이런 補償問題와 道路開設問題를 推進해야 될 것인지, 市와 自治團體의 豫算配分計劃에서도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

서 여기 事業에다 넣었는지 이것을 한번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더러 있습니다만 여러 委員님들이 나중에 말씀을 하실 것으로 보고 미진한 것은 다시 追加로 質問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 車奉五 委員, 質問해 주세요.

○車奉五 委員; 車奉五 委員입니다.

豫算內容을 보니까 상당히 意慾的으로 하려고 하는 면이 좀 보이긴 합니다만 全體的으로 좀더 未來志向的인 豫算이 編成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듭니다.

특별히 增額된 豫算 가운데 보면 過去에 대한 그대로 踏步하는 이러한 限度 內에서 豫算을 編成한 것 같은데, 明年은 50周年 光復紀念事業을 위주로 한 여러 가지 行事가 있는데 한 100年을 내다보는 未來志向的인 이러한 編成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行事가 기껏해야 古宮을 補修한다는 등, 남산골제 모습찾기 한다는 등, 城廓補修 한다는 등 기껏해야 이런 정도에 그치는데 좀더 現實을 잘 直視해서 서울市가 千萬市民이 文化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서울市가 안고 있는 問題點을 開發하고 未來志向的인 事業을 推進해서 지금 世界化, 國際化 굉장히 부르짖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行事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過去의 것을 자꾸 修理하고 補修하고 뭐 하고 이것도 좋지만 이것이 안타까운 감이 듭니다.

아주 開放해서 말입니다, 지금 서울市內에 엄청난 變化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變化가 있는데 그 變化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재다짐을 하고 未來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것이, 많은 豫算 가지고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고리타분한 內容의 編成을 했느냐, 정말 안타까운 감이 듭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새로운 事業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기도 사실 힘든 것이고, 우선 짜여진 豫算 內에서 왜 增額이 됐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정도의 質問을 하게 돼서 상당히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부터 豫算을 編成할 때에는 根本內容부터 잘해서 정말 千萬市民의 공감대를 形成할 수 있는 이러한 文化事業이 될 수 있도록, 또 未來志向的인 事業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增額된 內容面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남산골제모습찾기라고 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投資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億 얼마를 또 增額을 했고 서울館 設置 運營에 대한 것도 20億원이나 增額했고, 또 베세토 국제조예, 서화전 이렇게 했는데, 이것 좋습니다. 좋은데 한번 알차게 해서 정말 千萬市民의 공감대를 形成할 수 있는 이러한 文化事業이 없겠느냐.

저는 자꾸 偏狹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서울市內에 지금 엄청난 敎會가 있습니다. 이 모든 敎會가 한 번 結集해서 서울市의 앞으로 發展方向에 대한 절실한 어떤 事業目標를 가지고 다 參與해서 같이 우리 서울市民이 바라는 그러한 方向을 結集하는 세미나를 한다든가, 祈禱會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해서 全 市民이 함께 하는 멋진 事業이 될 수 있는 좋은 것이 있는데, 큰 돈 들지 않습니다. 돈 몇 푼 안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그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모든 敎會 機關과 협력을 해서 明年이 光復50周年事業이다, 50周年에 우리 千萬市民이 정말 바라는 方向이 뭐고, 앞으로 기대하는 방향이 뭐고, 무엇인가 거기에서 하게 되면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이 나오는데, 光復50周年을 향하는데 이것이 참 좋은데 이것을 왜 못하느냐,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수십억원씩 들이고 하는 것보다 불과 몇 푼 안 들이고도 엄청난 事業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 참 아쉽습니다. 한 번 大集會를 해 가지고 서울市民이 다 參與할 수 있는, 심지어 수십만을 動員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좋은 事業이 있는데, 그것 한 번만 하면 엄청나게 變化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인데 참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이 內容을 잘 檢討해서 明年 光復50周年 8·15를 계기로 해서 온 宗敎機關들이 모여서 외쳐대는 그러한 文化事業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한 方法은 없는지 말씀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 朴善童 委員, 質問해 주세요.

○朴善童 委員; 朴善童 委員입니다. 金寅東 委員님께서 앞서 質疑하신 內容과 같은 맥락에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光復50周年 文化事業費는 國庫補助金 포함 65億 6,300萬원입니다. 國家的으로 볼 때 커다란 意味가 있는 이러한 事業은 거국적이고 성대하게 開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地方自治團體에서 대부분의 豫算을 投入한다는 것은 그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봅니다. 光復50周年 紀念文化事業費는 總 65億 6,300萬원이 投入되는데 國庫補助金은 8億 4,000萬원으로써 全體 豫算에 비해 補助金이 아주 작습니다. 우리 서울은 定都 600年의 歷史가 意味하듯이 이 나라의 近代·現代史의 現場이

며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서울에서 近代史를 되돌아보는 光復50周年의 文化行事가 總 所要額의 13.2%인 8億 4,000萬원의 國庫補助金 支援이 있을 뿐 나머지 57億 2,000萬원은 서울市 財政으로 行事를 치러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事業內譯들을 살펴볼 때 總 所要額의 40%이상은 中央政府에서 支援되어져야 하는 國家的 行事라고 생각하는데 關係者의 所信을 밝혀 주시고.

둘째로 光復50周年 紀念事業으로 文化藝術事業이 10가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다섯 가지 事業은 民間經常補助와 民間委託金으로 事業이 推進되는데 이 事業別로 業務推進費가 300萬원 또는 400萬원씩 策定되어 있습니다. 指導 監督業務에 대한 事案도 業務推進費가 별도로 策定되는 것은 妥當한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 李載震 委員, 質問해 주십시오.

○李載震 委員; 95年度 一般會計 豫算을 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同僚委員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제 定都600年이 지나가니까 光復 50年에 대해서 상당한 行事를 計劃해 가지고 하시려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첫째로 今年에 國庫補助額이 例年에 비해서 정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今年에 10億 8,500萬원이 들어왔는데 거기 支援金額을 어떻게 쓰라고 명시해 왔는지 그 內譯을 確實히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光復50周年 紀念行事로 길놀이를 하는데 기왕 길놀이에서 얼마 하면 되지 7-27쪽에 보면 2,500萬원, 또 29

쪽에 보면 일련번호에 380번에 보면 3億 5,000萬원, 또 130번에 보면 1億 9,000萬원, 아마 그 외에도 내가 못 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갈라서 길놀이를 여러 번 하며 길놀이를 어떤 方法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재 方法이 똑같은, 名稱은 거의 같은데 中央公演인가 뭐해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金額差異도 다르며, 또한 行事를 어떤 方法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

또 7-41쪽에 보면 맨 위에 260에 보면 葬禮費라고 해 가지고 2人해서 100萬원 해 놓았는데 그 葬禮費라는 것이 무슨 葬禮費인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 또 밑에 보면 우리가 항상 제가 豫算 얘기할 때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꼭 이렇게 打鐘行事에 이렇게 엄청난 豫算을 들여야 하는 것인가, 해마다 하는 얘기지만 理解가 잘 안 갑니다. 340번에 보면 特別公演이 있고, 다음에 350번에 보면 제야의 밤 打鐘行事에 5,000萬원, 이것이 있고 또 光復50周年 보신각 打鐘行事에 6,000萬원 뭐, 每番 할 때마다 5,000萬원, 6,000萬원 들이는 이유가 도대체 理解가 안 간다 이것이에요.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작년에 얘기할 때는 今年에는 定都600年의 紀念行事를 널리 펴 가지고 즉, 말하자면 寫眞에 잘 담아서 外國에 이렇게 우리 나라는 제야의 종을 정말 廣範圍하게 또한 잘한다 하는 것을 寫眞으로 알리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今年에 豫算이 더 증폭되어 가지고 얼마나 더 거창하게 하려는지, 아마 해마다 하다가는 서울市民 千百萬을 다 모여놓고 豫算을 짜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을까 이것이 두렵습니다. 정확하게 豫算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또 다른 委員님 말씀하실 분이 많이 계실까봐 이것으

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李永輔 委員, 質問해 주세요.
○李永輔 委員; 李永輔 委員입니다.
光復50周年 行事가 비중이 큰만큼 여러분들이 質疑를 하고 계십니다. 今年度 光復50周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7-26에 特殊活動費 中 光復50周年 文化事業推進活動費 2,000萬원과 7-33 特殊活動費 中 光復50周年 事業造成 및 支援資金 2,000萬원, 그리고 業務推進費 中 光復50周年 事業造成 및 支援金 3,000萬원을 計上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使用用途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7-42, 7-43에 慶熙宮址 綜合基本計劃을 基本調査設計費에 1億원을 計上하고 있습니다. 慶熙宮址 자정전 復元은 施設費 53億 9,682萬원, 實施設計費 1,732萬 4,000원, 施設附帶費 7,396萬 2,000원을 計上하고 있는데 慶熙宮址 綜合基本計劃 樹立後 慶熙宮址 復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見解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慶熙宮址 자정전 復元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適正性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孫馥 委員님,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馥 委員; 孫馥 委員입니다.
앞서 質問한 내용에 대한 技術的인 質問事項이 있어서 잠깐 擧論하겠습니다. 먼저 금방 우리 李永輔 委員께서 慶熙宮址 復元에 대한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監査 때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慶熙宮址가 1段階 事業 이제 끝났

고, 來年 豫算에는 2段階 事業이 들어갑니다. 또 慶熙宮址를 하나의 文化財로서 復元하려고 하는 그러한 綜合史蹟公園造成基本計劃 또 用役費도 來年에 1億원 計上되어 있습니다. 慶熙宮址는 하나의 史蹟文化財로서 과거와 미래, 또 현대가 어우러져 있는 文化財 地域입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역시 市立博物館도 建立을 하고 또 定都600年 紀念事業의 하나로 서울特別市 文化館을 昨年에 지은 적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文化財를 保護하고, 文化財를 또 復元하고, 앞으로 後孫들에게 그 價値를 남겨주므로 인해서 歷史性을 고취시킨다는 그런 뜻에서 過去와 現代가 어우러져 있다는 그러한 側面에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慶熙宮址의 옛모습을 되찾으려면 과연 어떠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段階 工事가 끝나고 나서 하나의 史蹟公園 造成 基本計劃을 세운다고 하니 이것은 좀 뭔가 거꾸로 가는 그런 事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2段階 事業에서 자정전 외 여러 가지 事業을 열거해 놨습니다만 2段階事業 끝나고 또 3段階事業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은 좀 늦었지만 자정전 復元보다는 慶熙宮址의 앞으로 文化財로써의 復元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먼저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 울타리 내 안이고 모든 길 건너고 또는 그쪽 빌딩 있는 데에도 옛 歷史性으로 봐서는 거기가 전부다 慶熙宮址라고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100% 文化財로써 復元하려면 그러한 분야도 다 하나의 文化財 地域으로써 復元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 과거의 體史性만 고취시킬 수 있는 그 分野로써만 復元을 하는 것인지 그 復元의 의미와 事

業範圍를 좀 무엇인가 設定해 놓지 않으면 항상 今年에 조금 하고, 來年에 조금 하고 계속 이것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언제쯤 어떻게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光復50周年 紀念行事 여러 委員님들께서 指摘을 해 주셨는데 물론 65億원에 國庫 8億 4,000萬원이 支援되어서 14個 事業을 합니다만 이 事業別 妥當性 檢討는 물론 저희 常任委員會에서도 충분히 해 봤습니다. 또 局長님께서도 이 事業에 과연 光復을 알릴 수 있고 또 再現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文化事業으로써 좋지만 과연 이 14個 事業이 妥當性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光復事業推進 運營經費로써 豫算上에 지금 25億원이 計上되어 있습니다. 이 事業別 명세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館 設置에 대해서 잠깐 質疑를 하겠습니다. 물론 事業의 規模를 보면 目的을 보니까 대단히 地方政府로써 國際化, 世界化에 따른 하나의 서울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그런 弘報館이 될 수 있는데 國際的으로 보았을 때 우리 나라에 혹시 外國에 어떤 首都, 무슨 파리나 또는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弘報館이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아마 우리 서울에서 가장 世界的으로 큰 아이디어를 이번에 開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館을 지금 현재 여러 對象都市가 상당히 많은데 왜 北京과 LA만 設置를 하는 것인지, 金額은 한 20億원 정도 됩니다만, 또 한가지는 民間經濟 또 弘報行政 이러한 것들을 都市와 交流하고자 하는데 機能으로 보았을 때 물론 우리 市를 弘報하고 觀光을 弘報하는 것뿐만 아

니라 商品展示나 또는 商品을 販賣 促進할 수 있는 그러한 活動 또는 貿易 情報 等을 交換할 수 있는 이러한 活動이 굉장히 重要한 機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建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서울館은 우리 地方政府에서 하면 좋겠지만 이러한 民間外交 次元에서도 포함되는 것이니까 民間資本을 좀 誘致할 수 있는 그러한 計劃이 없는지. 물론 서울館을 運營하다 보면 거기에 人力도 소모되고, 여러 가지 設置費가 많이 들어가고, 또 앞으로 長期的인 그런 計劃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인 豫算이 反映돼야 되는데 서울館에다 우리 좋은 中小企業이나 또는 大企業의 어떤 企業弘報活動을 添加해서 地方政府와 企業이 같이 이렇게 서울을 알릴 수 있고 弘報할 수 있는 그러한 바람직한 方向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名譽大使 委囑 및 招請도 豫算에 9,200萬원이 돼 있습니다만 과연 名譽大使라고 하면 어떤 他國의 民間人을 우리가 大使로 委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問題입니다.

물론 事業構想은 돼 있습니다만 現在 여기에 대한 推進過程, 앞으로 이것이 과연 우리의 뜻대로 事業目的대로 實施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說明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서울600年 綜合展示館 改修라고 되어 있습니다. 2億 5,400萬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慶熙宮址 안에 서울文化館을 今年에 定都600年을 紀念하기 위해서 資料展示館으로 지금 設置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600年 綜合展示館은 없습니다. 그런데 文化館을 改修해 가지고 어떤 事業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說明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自願奉仕觀光가이드制 實施에 있어서 一般需用費로 해서 印刷費로 2,420萬원이 策定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內譯도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 李載震 委員님 補充質問해 주세요.

○李載震 委員; 李載震 委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7-43의 170페이지에 보면 光復記念碑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사실 光復記念碑나 이런 것들은 中央政府에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 地方政府에서 해야 할 것인가. 8,500萬원 들여서 光復記念碑를 세운다 이 案은 아까 제가 質問한 10億 8,500萬원 받아서 이것을 너희가 세워라 이러한 特別한 指示가 있어서 세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市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것인지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光復遺跡發掘復元 10億 7,000萬원을 計上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中央政府에서 해야지, 10億 7,000萬원을 들여서 遺跡을 發掘하는데 어떠 어떠한 것을 發掘하는지 그것도 확실히 明示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43에 있는 大院君 遺品 引受 人夫 및 人夫貸로 해서1,000萬원을 計上을 했는데 제가 大院君 遺品을 가서 보니까 人夫貸가 들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遺品을 引受하는 데.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만들었기에 1,000萬원 돈이나 引受하는 데 그렇게 드는 것인가. 도대체 大院君 遺品은 별로 큰 物件이 없고, 또 요새 美國에서 건너오는 새로운 物件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遺品 運送費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드는지 그것을 자세히 알려 주시고요.

昨年에도 한강다리밟기행사가 좋은 行事가 됐습니다만 역시

今年에도 2億원에 가까운 1億 9,700萬원을 計上을 했는데 그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될 수 있었던가 다시 한 번 再考해 보시고, 그 行事를 進行하는데 昨年에 잘해서 꼭 그와 같이 再現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좀더 다른 方法으로 새롭게 하는 것인가 이것 하고요. 또 獨立公園의 祝祭는 어떠어떠한 方法으로 하는데 2億 5,000萬원을 計上을 했는가.
그리고 昨年에 제가 적극 反對했던 敎會나 寺刹에 양초를 전부 한 대씩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쯤 양초가 다 만들어집니까?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來年度 豫算 없습니다.
○李載震 委員; 아니, 來年度 豫算이 아니라 今年에…….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今年度 豫算을 안 썼고 來年度 豫算은 없앴습니다.
○李載震 委員; 우리가 通過를 해 줬는데 왜 없앴어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是非가 많았는데.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梁元模 委員, 質問해 주세요.
○梁元模 委員; 梁元模 委員입니다.
定都600年紀念 文化事業 중 94年度에 이어 95年度에도 繼續事業으로 이어지는 事業은 몇 個가 되며 所要金額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地買入費 중 風納土城 復元補償金으로 50億원을 計上하였는데 당초 200億원을 計上하도록 計劃되었던바 不足額 150億원의 對策은 어떠한지, 이와 관련하여 請願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한 見解를 말씀해 주시고, 施設費 중 其他 指定文化財 補修가 9億 7,000萬원을 計上하였던바 風納土城 排水路 設置費 3,200萬 4,000원의 적정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業務維進費 중에서 世界 라이온스大會 支援費 1億 2,000萬원을 計上했는데 이에 대한 적정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없으므로 이상 質疑를 終結하고 執行部의 충실한 答辯準備를 위해서 잠시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1時 09分 會議中止)

(11時 39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喆鎬; 座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議를 續開합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계속해서 執行部의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委員님 여러분께서 質疑하신 內容에 대해서 答辯올리겠습니다.

먼저 光復50周年 紀念事業에 대해서 여러 委員님이 質問하셨습니다.

金寅東 委員님, 朴善童 委員님, 李載震 委員님, 孫馥 委員님, 여러분이 指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一括的으로 함께 答辯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光復50周年 紀念事業은 서울市 全體事業이 25個 事業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文化觀光局이 推進해야 할 事業이 14個 事業 15億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文化觀光局所管 事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政府가 해야 할 事項을 왜 서울市가 해야 되

느냐, 소위 政府와 서울市의 役割分擔이 무엇이냐 하는 점이 아마 質問의 요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光復50周年, 이제 우리 나라가 그동안 先進國으로 轉換하는 過程에서 國民 모두가 다시 한 번 각오를 새로이 하고 國際化, 未來化를 대비하는 하나의 계기의 元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時期로 政府가 보고 政府에서 政府 各 機關은 물론이요 各 地方自治團體에서도 많은 事業들을 해 주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大韓民國의 중심은 서울이고 또 서울이 先導하면 우리 國家 전체를 先導한다는 立場에서 우리가 意慾的으로 많은 事業들을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이 가운데 政府의 立場이나, 우리 서울市 立場으로 봐 가지고 우리 14個 事業 열거한 것 가운데는 새로운 事業도 있고, 또 우리가 늘 해오는 事業 가운데 이것을 光復50周年 이름을 빌려서 여기에 計上한 事業도 있습니다. 비록 光復50周年 行事란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固有한 文化行事로서 우리가 推進해야 할 事業도 이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過去試驗 再現이라든가, 記念碑 標石 設置라든가, 聖賢遺跡發掘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光復50周年行事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固有한 文化事業입니다.

그렇지만 來年이 光復50周年이기 때문에 서울市에서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을 우리 國民 전체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光復50周年事業에 포함시켜서 여기에 計上해 두었습니다.

이 가운데 저도 委員님 여러분이 質問하신 內容과 같은 맥락으로 理解하고 있습니다. 一回性 行事費, 또 이것은 國家가 앞장서서 해야 할 行事費를 왜 서울市에다 맡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委員님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합니다.

이것은 이 事業이 豫算編成 당초에는 우리들이 中央部處 會議할 때마다 이와 같은 것을 主張을 했지만 政府側에서 要求하는 事項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豫算에 計上을 했습니다만 이 部分에 대해서는 一回性 行事요, 中央政府的 行事 色彩가 농후한 行事들은 저도 그만뒀으면 하는 委員님들 생각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專門委員님하고 調整 過程에서 一回性 行事는 대폭 削減하는 方向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委員님 여러분 뜻을 받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金寅東 委員님이 여러 가지 質問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參考的으로 간단간단히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600年事業은 600年事業推進本部가 形成돼서 우리 市本廳 單位로 했습니다만 光復50周年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一回性 行事, 國家的 性格이 농후한 行事를 대폭 削減해 버리고 이것은 우리 文化觀光局에서 主管해도 되겠다 이렇게 判斷했기 때문에 거창하게 推進本部를 設置하지 않고 하나의 係單位 정도로만 우리 文化課에 增援 編成해서 우리 文化觀光局이 主管해서 推進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光復50周年 紀念行事와 關聯해서 國庫支援負擔金에 대해서 8億원이 있었고 왜 전부 서울市 豫算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이것은 李載震 委員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폭 削減해 버리면 우리 서울市가 새로이 負擔하는 그런 것은 아주 적고, 다만 이 길놀이는 뭔고 하니 50周年되는 8月 15日에 慶祝行事의 一環으로 政府가 대대적으로 길놀이 행사를 하자, 말하자면 거리퍼레이드를 한번 하자, 이것은 당초에 서울市 보고하라고 그런 것을 제가 가서 안 된다,

죽어도 못한다, 이것은 光復50周年 대대적인 慶祝行事 키포인트를 왜 國家에서 하지 地方에서 서울市가 負擔하느냐, 이래가지고 싸워서 한 것이 이 補助金 8億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國家에서 負擔하겠다 해서 負擔을 하는데 이것은 아직은 豫算編成上 여러 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事業計劃이 나와야만 이것은 어떤 형식의 길놀이가 될지는 來年度 政府와 協議를 한 具體的 퍼레이드 計劃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8億원의 補助金을 받았으니까 8億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執行을 이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하면 國庫에서 다시 還收를 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國庫에서 補助를 받았지만 성의를 다해서 光復慶祝式날 紀念行事를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善童 委員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신 內容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包括的 答辯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李載震 委員님께서 光復50周年 打鐘行事를 두 번이나 이렇게 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사실 昨年에는 600年을 여는 새벽종 치는데 우리가 돈을 좀 들여서 規模를 키워서 했습니다. 今年에도 역시 이것은 보신각 打鐘은 우리 서울市 行事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서울市가 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豫算에 計上했는데 光復節에 또 성대하게 치러야 되겠고, 每年 하는 제야의 종도 성대하게 치러야 되는데 사실 작년같이 하게 되면 約 2億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昨年에 우리 豫算은 한 4·5,000萬원밖에 안 들었지만 觀光公社로 하여금 우리가 이것을 떠넘겼기 때문에 한 2億원의 豫

算이 듭니다.

그런데 왜 그래도 이렇게 돈이 드는고 하니 여기는 아시다시피 보신각에는 전혀 照明施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照明施設費가 現代的으로 裝置하다 보니까 상당히 돈이 드는데 그래서 2回에 來年에는 제야의 종과 慶祝式에 이 보신각은 우리 서울市에 所在를 하고 우리 서울市가 늘 치던 종이기 때문에 우리 市廳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李載震 委員; 그러면 照明이라는 것이 지금 照明을 안하고 웬만한 照明으로써는 안 되고 이렇게 큰 6,000萬원 豫算 속에 照明값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照明값이 거의 한 3·4,000萬원이 들어갑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냥 이렇게 불켜는 것이 아니고 現代的 器機를 動員해서 불을 키고 그것이 동시에 방송망에 이것이 비쳐줄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것이 照明施設이 좀 커지고, 또 제야의 종 같은 것은 엄청난 市民이 또 雲集하고 있습니다. 雲集하는데 이 照明施設이 不足하면 캄캄한 데에서 하는 그런 問題가 생기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

○李載震 委員; 理解가 가네요. 그런데 지금 몇 백명, 몇 천명이 모이는 그 市民들을 전부 보면 그것이 캄캄해도 요새 施設이 잘 되어 가지고 照明이 안 돼도 사진이 잘 찍히고, 밝으면 더 낫겠죠. 지금 현재 가로등 켜진 것만 가지고도 市民들 다 알아 볼 수 있고, 또 좋은 撮影 施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撮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理解를 할 수 없는 것이 순간적인 몇 분을 비추기 위해서 몇 천만원을 소비

한다.
물론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겠죠. 이것이 우리 市民들이 요새 稅金을 내가지고 血稅를 내서, 稅 도둑을 하고 나눠먹는, 다행히 우리 서울은 좀 적어서 다행은 다행입니다만 이런데 이러한 돈을 다른 데, 즉 말하자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敎育豫算에는 이것이 아까 우리 委員長님께서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敎育에 熱意를 갖고 한다고 그랬는데 熱意만 있지 政府에서는 전혀 敎育같은 데는 아예 보지도 않아요.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순간 깜짝쇼를 할 것이 아니라 아까 圖書館이 몇 군데 있죠. 補助金이 전에 計劃하기를 20億원 이상을 計劃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18億원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 몇 군데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冠岳, 中浪, 城東입니다.
○李載震 委員; 그런데 사실 圖書館같은 데 책이라도 좀더 구해주고 사실 圖書館같은 데는 이렇게 1·2,000萬원만, 1,000萬원씩만 더 補助를 해서 그런데 더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야지, 종 한번 두들겨서, 거기 參席하는 市民이 얼마나 되고 우리도 畵面을 통해서 보죠. 보면 별로 6,000萬원 효과가 없어요. 그 종소리 집에까지 들려오지도 않고 거기에서 조용히 쳐도 되고, 왜 이렇게 큰 豫算을 浪費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問題는 결코 좀 줄여야 됩니다. 昨年에는 600年 紀念한다고 그래서 海外에 그런 것이라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또 2·3億원 들여서 잘 弘報했으면, 지금 다리가 부서지고 交通이 이 모양이고, 敎育이 이 모양인데 이런 데만 치중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당히 深思熟考해야 됩니다.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네, 그것에 대해서는 理解를…….

○李載震 委員; 그리고 記念碑는 무슨 記念碑입니까? 아까 나는 8·15 50周年 記念碑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무슨 記念碑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이 記念碑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하는 文化事業가운데 光復50周年 편입시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標石을…….
○李載震 委員; 標石이 무슨 뜻이 있는 標石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력없는 標石을 세워 놓는 것이냐, 무슨 예를 들어서 光復50周年을 紀念하는 標石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슨 文化를 標石하는 것이냐, 차라리 조각을 하나 해 놓지, 무슨 標石이 뭐냐 그 말입니다. 標石이라는 것이 명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이 標石을 한단 말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標石은 우리가 過去에 우리 文化遺跡地를 復元할 수 없는 곳에 이러한 地域에 過去에 이랬다 하는 標石을 길에 보면 세운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죽 해 왔습니다.
○李載震 委員; 그러니까 이번에 計劃한 것은 홍길동이 標石을 해서 文化遺跡을 기리는 것이냐, 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目的도 없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하나 찾아서 하고 만약에 못 찾으면 來年으로 또 미루고 이렇게 할 計劃 아닙니까?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아닙니다. 이 標石은 每年 標石設置를 해 왔습니다.
○李載震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번 今年 標石…….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今年標石은 형식상 光後50周年 事業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지,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文化遺跡

地에 들어갑니다.
○李載震 委員; 제 말씀을 못 알아 듣는데 이렇게 標石할 것을 해 가지고 찾아서 하는 것이면 찾아서…….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그렇죠. 過去에…….
○李載震 委員;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구 것을 어떤 名稱으로 標石을 한다고 그래야지, 표석비 마련해 가지고 찾아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豫算計劃이 어디 있습니까? 미리 사전에 누구 어떤 名稱을 해서 어떤 분을 標石을 이번에 세운다 하는 計劃을 가지고 있어야지, 표석비 먼저 만들어 놓고 부랴 부랴 여기 저기서 찾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補充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소실된 文化遺跡地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 있는 것을 每年 몇 개씩 이것을 정해서, 즉 말하자면 이것이 過去 文化遺跡地다 하는 標石을 設置하는데…….
○李載震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名稱을 적어도 여기에다 해 줘야지…….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알겠습니다. 그 資料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載震 委員; 알았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車奉五 委員님 質問하신 것에 대해서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質問의 要旨는 지금 豫算編成한 內容들이 過去에 하는 도식적 그런 行事에 치중하고 未來志向的이고, 世界化的인 그런 것이 별로 눈에 안뜨인다, 이런 質問하시고, 아울러 모든 敎會를 어떤 集結시켜서 세미나같은 것을

開催하면 좋은 意見이 나올 것이 아니냐 이런 質問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未來志向的인 行事가 적은 것도 저희들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機能이 주로 文化이고 또 文化다 보면 過去 지나간 歷史가 중추가 되다 보니까 과거의 일들, 南山골, 慶熙宮, 博物館 이런 것들을 再現하고 復元하는 內容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南山골, 慶熙宮, 博物館等의 이러한 것도 또 보시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未來志向的인 그런 事業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國際 姉妹都市 民俗祝祭를 했습니다. 했는데 未來志向的이라면 이와 같은 世界的인 祝祭를 계속 연례적으로 한다든가, 또 뭐 여러 가지 未來志向的인 事業을 폈으면 좋겠지만 民俗祝祭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來年에 國家에서 主管해 가지고 50周年 行事로 하겠다니까 우리 서울市가 별도로 世界化에 걸맞는 行事를 할 必要가 없다고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世界化, 國際化가 강조되는 추세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方向으로 앞으로 豫算編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今年에는 아직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硏究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世界化 未來志向的인 事業들이 編成이 안 되고 우선 한정된 豫算에 급한 일부터 하다보니 豫算規模가 상당히 그 부분에 미흡한 것을 諒解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敎會를 한꺼번에 모아서 대집회를 한다든가 세미나를 하는 方法은 매우 바람직한 方法이기는 하지만 저희들 立場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國家機關은 어떤 宗敎行事를 주관해서 集會하지 않는다, 이런 저희들이 原則이 서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憲法에 保障한 宗敎의 自由다, 이렇

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宗敎의 自由라는 것은 새삼스럽게 제가 說明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宗敎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宗敎에 대한 支援과 特惠도 배제하는 것이 宗敎의 自由의 內容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官이 앞장서서 宗敎的 集會를 開催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을 理解를 해 주시고, 만약에 敎會側에서나 불단에서 自體的으로 意見을 收斂해서 좋은 方案이 나온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기꺼이 선택해서 좋은 점을 수용할 그러한 자세는 되어 있다 이렇게 報告를 드리고 諒解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올립니다.

○車奉五 委員; 잠깐요, 말씀중에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할 수가 없어요. 바람직하면 그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애쓰는 그 事業趣旨를 우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基督敎 敎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佛敎건 基督敎건 宗敎가 健全하게 發展할 수 있도록 하는 責任은 國家에서 責任져야 하는 것입니다. 宗敎가 부패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佛敎건, 基督敎건, 어떤 敎건 건전하게 發展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50周年을 맞이하면서 그 宗敎가 基督敎면 基督敎, 佛敎면 佛敎가 무엇인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러한 계기를 직접 서울市에서 主管해서 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文化課 있지요? 그 傘下에 敎市協議會나 이런 것이 있지요. 그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50周年 맞이해서 우리 政府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牧師님들, 스님들 좀 생각해서 좋은 事業을 하나 해 주십시오 付託을 하면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약간 補助만 해 주면 된다고 봅니다. 主體는

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意識改革이 그런 方向으로, 官이 뭐해서 意識改革이 안 됩니다. 意識改革은 信仰的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참된 佛者가 되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건 그런 方向으로 계속해서 奉仕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해 달라는 말씀인데 그것을 皮相的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文化課 있지 않습니까? 文化課 그 안에 敎市協議會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佛敎면 佛敎의 指導級 人士를 불러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봐서 뭔가 거기에서 自律的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市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몇 倍 적은 豫算 가지고 엄청난 效果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館에 대해서 25億원을 策定해서 LA하고 北京하고 했는데, 답답합니다. 이 豫算 가지고 20군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LA면 LA에 큰 敎會, 영락敎會같은 것 딱 하나 指定하고 西部쪽은 그렇게 하고 東部쪽에는 뉴욕에도 큰 敎會 몇 個 있습니다. 指定해서 나가서 이러이러한 方向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거기에서 다 解決해 줄 수가 있습니다. 수천명이 各界各層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자연히 서울PR이 되고, 자연히 弘報가 되고, 자연히 우리가 主催할 여러 分野에 좋은 것이 나오고 굉장히 좋은 效果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밀접하게 關係를 가져서, 世界 各界 마찬가지예요. 北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아주 큰 敎會가 있습니다. 반석敎會라고 수천명이 모입니다. 거기에 큰 스페이스가 있습

니다. 거기에다 조그마한 事務室 하나 두어 가지고 서울에서 한 사람만 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現地 있는 사람들로 現地에서 엄청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億원 가지게 되면 한 열 군데 世界 各處 요소요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機會를 왜 포착을 못 합니까? 좀 未來志向的인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좀 積極的으로 임해 주면 엄청난 變化가 옵니다.

그런 次元에서 좀 理解해 주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서울館에 대해서는 孫馥 委員님도 質問하셨고 해서 이따가 같이 答辯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敎市協議會나 또 佛敎法會 때는 車委員님과 같은 그러한 內容을 소상히 說明도 드리고 좋은 意見을 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李載震 委員님 質問하신 것 가운데 答辯 못 드린 부분, 大院君 遺品 引受에 왜 1,000萬원이 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大院君 遺品이 석물로 된 것은 引受를 못 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京畿道 마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어 오자면 輸送費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輸送費입니다. 달리 우리가 雲峴宮에 갖다 놓을 것은 경한 品目이 아니고 마석에는 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車가 있는데 이것 輸送하는 데 돈 1,000萬원 들겠다, 特殊한 裝備를 좀 動員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內容인 것을 理解를 해 주시고, 또 葬禮費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葬禮費는 人間文化財로 된 분들이 돌아가실 때 우리가 50萬원씩 弔意金을 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今年에도 두 분쯤 돌아가실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計算한 것입니다.

○李載震 委員; 弔意金이라고 해야지 葬禮費라고 하고 하면 됩니까?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弔意金 겸 葬禮費 이렇게 됐습니다.
한강다리밟기를 그대로 再現할 것이냐 새롭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월달에 가서 論議를 좀더 해 보고, 現在는 定例化할 것으로 예상하고 豫算에 編成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定例化가 昨年에 評價가 비교적 좋았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委員님께서는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評價하시는 것 같지만 저희들은 또 한편으로 상당한 評價를 얻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豫算에 計上해 두고 좀더 硏究를 해서 만약에 한강다리밟기가 今年에 大橋崩壞事件도 있고 매우 어렵다면 奬忠團에 있는 水標橋 정도라도 우리가 過去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方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載震 委員; 그러니까 그 問題는 이제 조흥은행하고 또 동아건설에서 補助를 안 할 것 아닙니까? 補助가 없죠?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네.
○李載震 委員; 없으면 이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겠네요. 豫算을 다른데서 또 協贊을 받아야지 .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1億 5,000萬원 정도면은…….
○李載震 委員; 그래서 本委員도 해 보니까 별로 意味는 없는 것 같아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실제 보면 너무 浪費的인 일이 많고 돈 들어가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KBS에 다 들어간다고요.
즉, 말하자면 KBS에서 뭐 하는 데 들어가지 실지 行事하는 것을 보니까 달집 태우는 것이 돈 몇 푼 들며 그것 하는 것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昨年에 몇 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今

年에도 그렇게 거창하게 합니까?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이 行事 때 KBS에 돈 준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企劃社에 부탁을 해서 하게 되면 動員費라든가, 行事費, 裝備費 이런 것이 많이 듭니다.
○李載震 委員; 動員費는 왜 돈 주고 動員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各 區廳에 몇 名씩 招請狀을 내면 여유있게 우리가 몇 백명이 필요하면 1,000名을 내고 1,000名이 필요하면 2,000名을 내면 반수는 오게 돼 있습니다. 서울市民으로서 動員하는데 動員費를 줘 가지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表現이 좀 어색하게 됐습니다만 動員費는 群衆動員을 지금 뜻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演藝人이나 앞에 타는 사람들 이 사람들 動員費입니다.
○李載震 委員; 어쨌든 豫算을 다시 한 번 해서 조금씩이라도 節減해 가는, 적게 들여서 큰 效果를 낼 수 있는 그런 行事를 생각해 주십시오.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50周年도 一回性 行事는 대폭 削減을 하고 旣已 하기로 豫想된 行事도 가능하면 줄여서 豫算을 아끼는 方向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李永輔 委員님, 또 孫馥 委員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慶熙宮 復元에는 마스터플랜부터 있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慶熙宮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復元할 것이냐 하는 것을 미리 정하고 宮闕을 復元하는 것이 옳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제까지 마스터플랜 없이 단편적으로 復元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今年에는 이제 宮闕 復元도 1段階는 完成을 하고 뒤에 자정전도 다시 2段階 復元計劃도 세우고, 또 博物館도 지금 지어가는 過程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龍飛泉 復元이라든가, 또 公園化해서 市民들이 文化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提供할 수 있는 綜合的인 計劃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必要性 때문에 今年에 여기에 用役費를 계산했습니다.

이것이 일이 거꾸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만 거꾸로 갔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한 점을 理解를 해 주시도록 付託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서울館 設置에 대해서 孫馥 委員님 말씀하셨고 추가적으로 車奉五 委員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우선 1次 計劃이 北京과 LA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서울館을 設置해서 우리 서울을 外部에 알린다, 또 外部에 직결을 시켜서 좋은 의견을 얻는다 하는 단순한 서울館이 아니고 이제 地域經濟를 중요시하는 地方化 時代에 지금 우리가 접어들고 있고, 또 都市外交가 强調되는 過程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官의 行政情報를 필요로 하는 駐在官은 이미 세 군데 있습니다만 그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 民間企業들이 對外에 商品宣傳을 하고 外國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야 되겠고, 우리가 또 文化的으로 相互 交流할 수 있는 터전도 마련해야 되겠고 이러한 綜合的인 側面에서 우리가 計劃하고 있는 것이 서울館입니다.

그래서 서울館을 어디다 먼저 해야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

商工人들과 많은 접촉을 해보았습니다. 商工人들의 바람이 우선 이제 北京이 필요하고, 또 우리 庶民들이 많이 살고 있고 對外的으로 中小商工製品이 進出할 수 있는 先進國 쪽에서는 LA가 우선 급하고, 그 다음 開發途上國에서 남미쪽이나 인도 네시아쪽 이 쪽이 중요한 地域이다 이렇게 商工人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한꺼번에 네 군데는 할 수가 없고 우선 北京과 LA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곳을 지목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建物賃貸料가 北京 같은 데는 상당히 비쌉니다. 또 거기에 나가려면 駐在員으로 역시 公務員도 나가야 되겠고 또 商品 宣傳하는 사람도 나가야 되겠고 이런 여러 사람의 人件費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 계속 돈 더 들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增加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運營하겠느냐, 여기에 일정한 坪數를 늘리고, 또 많은 부스를 設置해서 소위 海外 進出코자 하는 商工人들에게 場所를 提供함으로 인해서 그 商工人들로부터 대가를 받을 작정입니다. 거기에 商品 宣傳하면 宣傳期間동안 부스 값은 얼마씩, 앞으로 이것은 좀더 具體的인 計劃이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해서 이제 자꾸 投資 안하고 대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基盤만 設置하는 그러한 內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勤務하는 要員도 최소인원만 우리가 나가고 商工會議所나 KOTRA쪽에서 支援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人力을 支援받는 이런 形式으로 運營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市 財政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떠냐 이렇게 따지면 물론 財政收入에는 이것이 그렇게 플러스가 안 되

겠습니다만 다만, 우리 서울市의 産業系에 있는 분들이 海外에 가서 많이 活動할 수 있고 많이 商品을 팔 수 있는 하나의 터전을 마련하는 서비스적 機能이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觀光分野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우리 市 財政 收入에는 計上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市에 居住하는 商工人들이 海外에 나가서 장사 잘하면 그것이 우리 서울市民의 生活 向上에 크게 플러스가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開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初期段階에서 具體的으로 상세한 費用은 說明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만 우선 建物賃貸料와 最小人件費, 初期段階 基盤施設費, 이 정도를 設置한다 하더라도 한 20億원이 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는 한두 名의 人件費와, 소위 建物賃貸料가 傳貰槪念으로 될지 月貰槪念으로 될지 아직 未定입니다만 傳貰槪念으로 된다면 소위 賃貸料도 더 들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推進過程에서 또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孫馥 委員;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展示館 面積이 140坪 정도 되는데 꼭 140坪을 정한 理由는…….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그것은 대충 정한 것입니다. 대충 정한 것인데 그것은 建物이 確定되고 앞으로 나가는 企業體들의 展示와 이것은 聯關이 되어야만 그것은 確定이 되겠습니다. 지금 算出基礎는 대충 그런 規模로 이렇게 140坪 정도 해야 部署도 設置하고 事務室도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算出基礎를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孫馥 委員; 그리고 LA하고 北京하고 비교하니까 LA보다 北京이 한 여덟 배가 비싸네요?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지금 北京에는 建物賃貸料가 韓國보다 오히려 더 받는 엄청난 집값입니다. LA는 비교적 그래도 싼편이고, 이것은 KOTRA쪽에서 좀 싸게 提供하겠다는 提案이 있기 때문에 LA는 좀 적게 우리가 잡았습니다.
○孫馥 委員; 北京은요?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北京은 아직 그런 提案이 없습니다.
○孫馥 委員; 施設設置費도 물론 어느 規模로 어떠한 방을 꾸미며 展示館을 어떻게 만들어야될지 무슨 자세한 計劃이 나와 있길래 이렇게 豫算이 編成된 것 아니겠어요?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그런데 이것은 그 計劃이라는 것은 현 단계로써는 대충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것이 이것은 建物이 確定된 뒤에 거기에 맞춘 施設이어야 되기 때문에 具體的으로는 안 되고 이것도 조금 추상적이기는 합니다.
○孫馥 委員; 그리고 派遣하는 사람도 書記官 1名, 事務官 1名인데 書記官이나 事務官이나 1名만 나가면 되지 두 분이 幹部職이 나가서…….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그것은 孫委員님하고 저는 見解를 좀 달리 합니다. 달리 하는 것이 우리가 駐在官 같으면 간단합니다. 가서 있지만 서울館은 상당한 活動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內容이고, 또 이것은 지금 國際關係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大使館을 設置를 못하는 그런 立場에 있기 때문에 서울館이라는 하나의 都市行政의 변형된 상태로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比較해 본다면 오히려 여기는 職級을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大使館과도 接觸이 잦아야 되겠고, 또 앞으로 우리 國內 他 市·道에서 派遣되는 그런 사람들과 격식도 따져야 되겠고, 또 여기에 가면 각종 KOTRA나 商工會議所,

貿易協會에서 派遣된 사람을 指揮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總 責任者的 立場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可能하면 職級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孫馥 委員; 서울館 設置에 당초 發想은 언제쯤 되었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昨年쯤 發想을 했습니다. 작년 봄쯤 發想을 해서 意思를 타진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孫馥 委員; 그 동안 우리 業務報告나 이럴 때는 전혀 없었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實現性이 없어서 報告를 못 드렸죠.

○孫馥 委員; 豫算編成 때 올라온 것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來年부터 本格的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孫馥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業務推進 事項을 報告를 해 주셨어야지…….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報告를 드리자면 적절한 시기도 없었고, 저희들이 아직 確信이 안 섰기 때문에, 또 報告를 잘못 드리면 하려고 그러다가 왜 안 하느냐는 꾸중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報告를 안 드렸습니다.

○孫馥 委員; 지금 世界化로 가는 마당에 일찍 일찍 報告를 해 주셨으면 좋죠.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來年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대사…….

○崔沆洛 委員;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館 設置에 대해서는 저도 肯定的으로 評價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答辯過程에서 대략 抽象的으로 20億원을 策定했다고 그랬는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豫算을 짜

는데 대략 抽象的으로 했다.
그렇게 내 생각에도 두 군데에다 서울館 設置하는데 굳이 20億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具體的으로 說明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豫算을 잡을 때는 뭐를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해서 20億원이 나왔다. 그래서 이 돈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제가 抽象的이라는 用語를 쓴 것은 具體的으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뭘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孫委員님이 물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答辯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抽象的이라는 用語를 썼습니다만 대충 2個 國으로 140坪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정도 돈은 지금 論議되는 過程에서 들겠다 하는 정도이지, 더 이상 具體的인 計劃은 建物이 確定된 연유라야만 구체적으로 報告를 드릴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崔沆洛 委員; 20億원이라는 金額이 맥시멈으로 잡아 가지고 그냥 여유있게 잡아놓은 金額이죠?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완전히 여유가 있다고 보기보다도 이 정도면 출발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다음 名譽大使 問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新聞에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名譽大使라는 用語에 대해서 外務部가 지금 아주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名譽大使 制度를 하면서 海外事情이 그래도 우리보다 外務部가 밝지 않겠느냐, 그래서 外務部에서 外國에 있는 重要都市에 있는 有力人士를 推薦해 달라 하는 過程에서 名譽大使라는 用語를 써서 外務部에 要請을 했더니 外務部가 外交權을 왜 地方政府가 침범하느냐, 外交는 國家外交다, 그러니 大使

라는 名稱을 못쓴다, 이런 反論을 提起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外交는 꼭 國家에서만 해야 되느냐, 議員外交도 있고, 民間外交도 있고, 뭐 다방면에 外交가 있는데 꼭 外交라는 것이 國家만 해야 되느냐, 앞으로 地方化 時代에서 都市外交라는 用語가 요새 상당히 유행이다. 그러니 우리도 法이 보장하는 그런 外交라는, 現行法이 保障하는 外交라는 뜻이 아니고 外國과 交流하자는 外交다. 그러니 大使라는 名稱은 아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名譽자가 붙었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을 해 달라. 大使자가 꼭 불만이라면 굳이 大使 아니라도 우리 자문위원이라고 해도 좋다. 우리는 어떠한 형식의 名稱을 가져도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外務部에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해서 실랑이가 붙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안 되어도 좋다, 너희들은 그러면 關與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은 그대로 推進할 작정입니다.

○金寅東 委員; 外交文書를 交換한다든지, 國家間의 外交가 아닌 바에야…….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有力人士 推薦過程에서 그런 用語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問題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하지 말라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는 過程에서 推薦을 못 받았습니다. 推薦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진척이 없어서 결국 外務部에서 推薦 못 받으면 우리 자체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推薦받아 가지고 名譽大使를 任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綜合展示館 改修費用인데 아까 文化館 孫馥 委員

님…….
○孫馥 委員; 무슨 책이죠? 95年 事業別 說明資料에 보면 94年中 對象者 選定, 94年 3月中 서울로 招請, 이것이 말이 안 맞네요?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今年度에 委囑하고 來年度에 招請할 計劃이었는데 豫算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못한 것이죠.
○孫馥 委員; 來年度 언제 豫算事業입니까? 이것이 推進日程에 95年度 3月中 서울로 招請, 이것입니까, 이것이? 內容이 잘못 印刷된 것 아니에요?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5자가 4자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孫馥 委員; 그렇죠?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그 다음 綜合展示館 改修費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慶熙宮앞에 600年 綜合展示館이 設置되어 있는데 이것은 文化財管理局에서 당초 결의를 받을 때 今年까지만 써라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600年 資料展示館을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해 놓고 아직 慶熙宮터에 綜合的인 소위 뭐랄까 마스터플랜에 의한 綜合的인 整備가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이것을 돈들고 뜯을 필요가 뭐 있느냐, 고쳐서 우리 文化空間으로 提供하자,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자면 美術館으로 써도 안 되느냐, 지금 美術館을 빌려달라는 데가 많은데 이것을 다 충족을 못시키는데 여기에 좀 改·補修해 가지고 展示館을 만들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今年에 돈을 좀 들이더라도 文化空間으로 提供하자 이런 생각으로 豫算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美術館 面積으로 봐서

한 배 정도 크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美術人들이 要求하는 內容들을 여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孫馥 委員; 그러니까 今年 定都600年紀念 하나의 文化館으로서는 一回性 事業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아니죠. 이것은 600年 立場에서 보면…….
○孫馥 委員; 10億원이나 들여가지고 하는데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600年 立場에서 보면 一回性인데, 一回性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一回性이지만 그것을 一回性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昨年부터 文化財管理局에서 비록 今年에 하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음에 쓰겠다는 腹案이 마음속에 깔려 있었습니다. 어차피 美術人들의 要請이 아주 많기 때문에 내심으로 이것은 文化財管理局에서 그렇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몇 년 이것을 文化空間으로 提供을 하겠다 하는 腹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孫馥 委員; 改修를 안하면 利用을 못합니까?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改修 안하면 展示하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가이드는 委員님 指摘하신 대로 이것이 印刷費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手當的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補償金으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저희들도 判斷하고 있습니다.
○孫馥 委員; 그러면 豫算科目을 바꾸어야 되겠네요? 그것을 한번 設明 좀 해주세요.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지금 一般運營費, 一般需用費 2,420

萬원, 公共料金 500萬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상금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孫馥 委員; 자원봉사관광가이드 運營印刷費 2,420萬원과 公共料金 500萬원.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補償金으로, 公共料金 500萬원 합해서…….
○孫馥 委員; 印刷運營費 2,420萬원과 公共料金 500萬원.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그것을 補償金 2,920萬원으로, 科目調整을.
○孫馥 委員; 이것을 補償金 2,920萬원으로, 당초 왜 이렇게 하셨어요?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우리가 豫算編成 過程에서 來年度 豫算編成時에 아마 이렇게 豫算課에서 잘못 計上되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發見을 했습니다.
그리고 金寅東 委員님 오셨기 때문에 市立博物館은 사실 96年度에 마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今年 여름에 博物館 建立敷地 庭園敷地 內에 많은 遺構들이 發見되었습니다. 發見돼 가지고 博物館 本體가 차지하는 땅이 아니고 庭園에, 그 遺構라는 것이 궁궐터라는 것이 아니고 옛날 궁궐에 음식을 해대는 그러한 취사장터가 發見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苦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學者들한테 用役을 주어서 이것을 硏究도 시키고 하는데 이것은 學者들의 見解가 外國에도 그런 例가 있고 하니 그 遺構를 그대로 硬化處理해서 그것을 덮어서 보이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保存을 하는 것이 歷史現場을 보는데 좋은 資料가 될 수 있다, 그냥 파내버린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그것을 그대로 保存하자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이 궁궐터가 돼서 다시 復元할 價値는 없고 그냥 아주 그 狀態에서 硬化處理해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이런 方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좋은 현상이 됐다, 이런 學者들의 결론이 있어서 이것을 發掘하는 過程에서 한 半年을 여기에다 消費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마침 이러한 遺構가 나왔기 때문에 좋은 하나의 展示資料로 오히려 活用할 價値가 있다 이렇게 判斷하다 보니까 96년말까지는 좀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97年쯤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우선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光復50周年行事 가운데 政府가 해야 할 일, 우리 서울市가 해야 할 일을 분명코 委員 여러분들의 의견을 尊重해서 많이 저희들이 갈음해서 國家가 해야 할 일은 여기에서 國家에 맡기고 또 一回性 行事는 削減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形式上 그래도 서울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의 체면을 차리는 정도의 行事와, 또 이것이 形式上 光復50周年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每年 해오는 文化行事는 그대로 살려두고 여타는 削減 調整하는 方向으로 하겠습니다.

○崔沆洛 委員;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委員들의 질타가 있어서 削減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事前에 그렇게 削減할 것을 각오를 하고 豫算案을 내놓은 것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아닙니다. 우리 崔委員님 처음 說明할 때 좀 늦게…….

○崔沆洛 委員; 아까 本委員은 質問 안 드리고 가만 있었는데

이것 밖에 나가서 듣자 하니까 光復50周年 紀念事業豫算이 64億원인데 政府豫算 國庫補助金 빼면 8億원이죠. 그러면 56億원 정도 되는데 56億원에서 34億원 정도는 削減해도 무방하다,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本委員이 執行部側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로 보면 한 60%이상 削減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꼭 이 자리에서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委員들이 國家에서 해야 될 事業인데 왜 여기에서 하느냐 그런 질타를 해서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사전에 削減하리라고 알고서 이렇게 豫算案을 내놓았는지 理解를 못하겠어요.

또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하는 것 들어 보니까 市長이 바뀌어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거기에 대해서 바로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光復50周年行事는 우리 豫算編成되기 이전에 어디서 취급했느냐 하면 600年事業本部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政策企劃官 산하에서 취급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政府의 方針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대적으로 하고 그 상당한 부분을 서울市에 負擔시켰던 그런 事業입니다.

그래서 그 過程이 죽 年來 가까이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豫算編成 때는 서울市가 그래도 首都니까 제일 많이 해야 된다는 중압감에서 서울市가 많은 行事를 計劃해 가지고 豫算編成까지 했는데 政府 方針이 최근에 와서 8月 15日을 전후한 行事로 이렇게 압축돼 가는 過程에 있고, 또 소위 地方에 떠넘기는 강도가 훨씬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文化觀光局에서 이것 引受를 받고 속된 말로 뒤로 나자빠진거죠. 昨年에 一回性 行事를 너무 많이

했다는 非難도 있고 하니까 今年에는…….
○崔沆洛 委員; 그런 사정이 있으면 事前에 우리 委員會에 說明도 해 주고 그렇게 했어야지 豫算案만 딱 갖다 내놓고 얘기 나오니까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執行部에서 지금 그런 얘기 안하고 그랬으면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事前에 얘기를 좀 해 주든지 油印物을 나눠줄 때 얘기를 해 주어야죠. 여기서 指摘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아니, 公式的으로 事前에 報告를 드릴 機會는 없었습니다.
○崔沆洛 委員; 公式的이 아니더라도 事前에 職員이라도 보내서 說明을 해 주고 그랬어야지 여기에서 指摘이 없었고 그냥 豫算을 통과시켰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아니, 그것도 最近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豫算書에 안 넣었겠죠? 豫算은 印刷가 다…….
○崔沆洛 委員; 說明이 없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64億원이라는 豫算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그대로 執行하려고 했어요?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현명한 委員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최근에 擔當이 넘어오고 書類가 넘어왔기 때문에 12月 1日字로 引受引繼를 받았습니다.
○崔沆洛 委員; 局長님 業務報告할 때도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質問을 하니까 나와서 얘기가 되고 計數調整 過程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데.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12月 1日字로 業務引繼 引受를 받았습니다, 이것 600年事業…….

○崔沆洛 委員; 대폭 削減해서 일 안하겠다는 그런 얘기나 똑같은 것이죠.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가운데는 우리가 늘상 하는 事業들도 서울市에서 많이 한다는 소위 표시를 내기 위해서 들어간 事業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答辯을 드렸죠. 갑자기 내놓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引繼引受 過程에서 명백한 線이 안 그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李永輔 委員; 자꾸 이리저리 핑계만 대시고 合理化시키려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 도중에 여기 記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일도 豫算 節減 차원에서 그만 두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말을 合理化시키려고 애쓰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솔직하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다, 職員이라도 먼저 보내서 說明을 해 줬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못해서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끝낼 일이지 그것을 왜 자꾸 合理化시켜요?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미리 說明을 못 드린 점 미안합니다.
○李永輔 委員; 그런데 뭐 대단하게 생색이나 내는 모양으로 委員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이것을 削減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물론 제가 職員이라도 보내서 說明을 안 드린 것은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계인수 過程에서 자신이 안 섰기 때문에 제가 說明을 못 드린 것이고요.
○崔沆洛 委員; 인계인수라면 무슨 引織引受를 말하는 것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이 光復50周年 行事가 600年事業本部에서 推進을 하다가 600年事業本部가 解體됨으로 인해서

이 推進內容이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內容을 미리 說明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崔沆洛 委員; 觀光局長님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 引繼引受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납득이 안 가요. 責任者로서의 그런 얘기가 납득이 안 가고, 하여튼 이 過程은 잘못됐어요, 내가 봤을 때는. 사전에 說明 좀 해 주고 이해를 구했으면 우리도 상황이 다른데 아까 業務報告에서도 얘기가 없고 質疑와 計數 過程에서 이것이 드러나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이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梁元模 委員님 質問하신 데 대해서 風納土城 排水路 3,200萬원 計上된 것은 風納土城 안에 있는 現在 家屋들, 말하자면 請願에 들어온 家屋들, 그 주위가 排水 不良狀態로서 물이 찬다는 區廳으로부터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排水路 工事하기 위해서 3,200萬원을…….

○梁元模 委員; 자체 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아닙니다. 文化財保護區域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했고요.

○孫馥 委員; 그러면 말이죠, 기 440m에서 일부 한 백 얼마를 했더라고 自治區에서. 現場 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청원 들어와서 나중에 補償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自治區에서 하라고 그러세요. 自治區에서 그만큼 해 놨더라고요.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이것은 保護區域 內는 自治區에서 하면 좋겠지만 原則으로는 風納土城 敷地 內이기 때문에…….

○孫馥 委員; 自治區 豫算으로 하라고 하세요. 松坡區는 돈도 많은데.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그 다음에 라이온스大會에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崔沆洛 委員; 잠깐만요, 風納土城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시다.
補修復元事業費가 150億 9,000萬원 이렇게 策定이 됐는데 이것이 95年度 事業豫算費 아닙니까? 그렇죠?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네.
○崔沆洛 委員; 來年 事業豫算으로써 당초 計劃했던 대로 잡혀진 것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金額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風納土城 補償費 말이죠?
○崔沆洛 委員; 네.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우리가 당초 要求하기는 每年 200億원씩 要求를 합니다만 사실…….
○崔沆洛 委員; 그러면 한 40億원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計劃대로 한다면?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이것은 市財政 형편상 50億원 이상은 每年 도저히 負擔할 수 없다는 豫算當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로 봐서는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도저히 豫算總括編成 過程에서는…….
○崔沆洛 委員; 하여튼 豫算이 計劃했던 것보다 부족하게 잡힌 것이죠, 이것이?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부족하죠.
○崔沆洛 委員; 알았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梁元模 委員님 라이온스大會 支援金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라이온스는 本會議 때도 報告를 드렸습니다만 2萬名 이상 外國人이 오는 그런 큰 大會입니다. 그리고 또 형식상 이런 大會를 서울에 誘致하려면 名稱은 서울市長이 要請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開催地 市長

이. 93年 서울市長 名義로 라이온스大會 誘致를 했습니다. 물론 라이온스 會員들이 宿泊시키고 會議하고 다 합니다만 한 번은 開催地 市長이 밥을 사줘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國際的 民間會議지만 開催地 市長이 밥을 내는 것이 世界的인 慣例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計上됐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고 추가적인 疑問事項이 있으면…….

○金寅東 委員; 本委員이 한 가지 建議를 하겠는데, 우리 豫算 안 드는 光復事業 좀 합시다. 뭐냐 하면 國旗 달기운동을 해요. 어떤 것이냐면 지금 우리가 國際化가 안 되었는데 本委員이 大韓民國 國旗揭揚에 관한 規定을 보니까 이것 도대체 우리 나라 하는 꼬라지들이 말이야, 第3章 國旗의 揭揚을 보면 國旗의 揭揚 및 降下 時間은 國旗는 비 또는 눈이 내리지 아니하는 날에 낮에 揭揚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지금 美國이나 구라파 가 보세요. 大型國旗들을 길에다, 그 사람들 그것 보면서 國家意識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本委員이 運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本委員이 政府에 改正 建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놓고는 다만 그 2項에 보면 특별한 行事로 인하여 이에 따를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規定도 또 있어요.

사실 비가 오는데 外國元首 온다고 저기 배너 꽂는 데 꽂아 놨다가 비 온다고 빨리 가서 건져내는……. 이것은 또 예외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美國은 큰 주청사라든지, 또 큰 道路에 民間人 業所같은 데 큰 대형 國旗를 걸어 놓습니다. 우리 委員들 보셨잖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밤이나, 낮이나 걸어놔요. 그리고 밤에는 照明 비춰주고, 그래서 볼 때마다 그 國旗를 대할 때

國家意識을 북돋아 줍니다. 歐羅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國旗를 소중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揭揚方法을 개선해서, 이런 것은 豫算案 들고 國民運動 해 보세요. 이것 光復50年에 멋진 行事됩니다. 내가 아이디어 한번 드리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내가 이것을 規定이에요, 大統領令이에요, 이것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發議하려고 그러니까 같이 한번 노력해서 國旗揭揚 運動하는 것 事業에 한번 넣으세요.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네.

○金寅東 委員; 光復50年에 한번 뭘 합시다. 이상입니다.

○梁元模 委員; 定都600年 繼續事業으로 인한 所要金額은?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600年事業 마무리 豫算 1億 4,550萬원 編成이 되었는데 이것은 主 事業이 백서발간입니다. 그것이 600年事業을 지난해, 今年입니다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만 그냥 훌쩍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600年事業으로 우리가 한, 그러한 것을 하나의 記錄으로 남겨놓자, 그래서 後代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作業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豫算事業으로 推進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타임캡슐광장관리 이런 內容들이 들어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孫馥 委員; 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自治團體 補助가 있는데 圖書館 支援問題, 城東하고 中浪, 冠岳이 있는데 城東은 20億원, 中浪은 18億원, 冠岳은 15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배분된 內容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支援하지 않고 차이를 뒀는지 그것을 한번 說明해 주세요.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이것은 區別로 우선 城東, 中浪, 冠

岳에 3個를 정해 놓고 區別로 財政需要充足度에 따라가지고 敷地買入費는 中浪과 冠岳은 40%, 또 城東은 30%, 또 建築費는 中浪과 冠岳은 50%, 城東은 40% 이런 比率에 따라가지고 대충 計上한 것입니다.
○孫馥 委員;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用語인데.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우리가 보통 이런 原則을 정해 놨습니다. 그 圖書館 建立은 市가 반, 區가 반, 대충 이런 基本基準下에 거기 그 區廳의 區稅, 말하자면 基準財政豫算 關係基準財政이 있는데 그 區의 基準財政을 基準으로 해가지고 中浪과 冠岳은 좀 어려운 區이고, 城東은 좀 나은 區 아니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40%, 50%, 30%, 40% 이런…….
○孫馥 委員; 財政自立度 側面에서…….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孫馥 委員; 그러니까 自治團體에서 많이 確保를 하면 그만큼 더 좀 많이 해 줘라,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저도 하나 建議事項을 합시다. 서울市 文化賞 問題인데 이것이 언제 500萬원인데 여기에 全體的으로 보면 21億 600萬원을 策定한 것 같아요. 그런데 文化賞을 제일 앞에 놓고 보면 1人當 500萬원 정도로 해서 한 10수명 정도 주는데 이것이 창피하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무슨 賞하면 평생 먹을 것이 나올 정도로 주면서 이것 30年, 50年, 60年 平生을 가지고 學者들 공부해 가지고 서울市에서 명예스럽게도 文化賞 하나 選定해서 겨우 500萬원 주고 떠벌리기는 이렇게 앞에다 내놓고 21億원 어쩌고 하는데 이것이 좀 창피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500萬원 決定된 것이 이것이 언제예요?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이것이 委員長님 말씀대로 저도 좀 얼굴이 지금 뜨거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이것 外國 사람들 와서 文化賞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팬클럽 할 때 이것 하나도 對答하는 사람 없었어요, 창피해서.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그래서 얼굴이 좀 뜨거운 형편이어서 今年에 豫算當局에다 대폭 올려달라고 要求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反映이 안 되었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反映이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여기에서 削減된 그러한 돈을 여기다 첨부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제가 答辯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500萬원이 92年부터 있는데 사실 그 분들의 功勞로 봐서 500萬원이 너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豫算을 削減해서 여기에 하면 또 修正豫算關係, 豫決에서 同意가 매우 힘들고, 저희는 현재 생각으로써 문예진흥기금에 申請을 해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 좀더 주는 方向으로 今年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기 때문에 計數調整을 위해서 停會를 잠시 동안 宣布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2時 52分 會議中止)
(13時 14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喆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먼저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1995年度 文化觀光局所管 및 敎育廳轉出金에 대한 서울特別市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해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孫馥 委員; 있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孫馥 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馥 委員; 孫馥 委員입니다. 1995年度 서울特別市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 中 文化觀光局 所管 豫算에 대해서 審議한 結果, 다음과 같은 內容에 대해서는 本委員이 審査內容에 대해서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光復50周年 事業調整 및 支援經費 27億 3,065萬 9,000원 중에서 22億 7,374萬 9,000원을 削減하고 또 光復50周年 紀念事業 中 그림으로 보는 光復50周年 1億 445萬 5,000원과 日帝後 社會生活變遷寫眞展 2億 1,018萬원과 獨立運動再現 3億 400萬원, 獨立公園祝祭 2億 5,450萬원, 그리고 光復節 慶祝民俗公演 6,100萬원, 光復50周年 역사현장극 4億 300萬원을 光復50周年 事業에서 削減하고, 風納土城 排水路 設置 3,240萬원을 削減하여 削減 總額 36億 4,328萬 4,000원 중에서 圖書館建立費로 中浪圖書館에 2億원을 增額 調整하고, 冠岳圖書館에 5億원을 增額 調整하고, 나머지 29億 4,328萬 4,000원을 豫備費로 計上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관광가이드 運營事業 中에서 一般運營費 2,920萬원을 削減하여 보상금에 增額 調整하고 나머지 여타 부분은 原案대로 可決할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李喆鎬; 孫馥 委員께서 原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修正案을 發議하셨습니다.

光復50周年 事業調整 및 支援 등 27億원 중 7億원을 削減하고, 그림으로 보는 光復50周年에 1億 445萬원을 또 削減하고, 日帝以後 社會生活變遷寫眞展 2億 1,018萬원을 또 削減하고, 獨立運動再現에 3億 400萬원을 또 削減하고, 獨立公園 祝祭 2億 5,450萬원을 또 削減하고, 光復節 慶祝民俗公演 6,100萬원을 削減하고, 光復50周年 역사현장극 4億 300萬원을 削減하고, 風納土城 排水路 設置 3,200萬원을 削減해서 總額 36億원을 中浪圖書館 建立費로 2億원을 增額 調整하고, 冠岳圖書館 建立費로 5億원을 增額 調整하고, 나머지 29億원을 豫備費로 計上하고, 自願奉仕觀光가이드 一般運營費 2,920萬원을 削減해서 補償金에 增額 調整하고, 나머지 여타 부분은 原案대로 可決하자는 修正案을 發議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再請이 있으십니까?
(「再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

2. 1995年度文化觀光局所管(文化藝術振興基金包含)및敎育廳轉出金서울特別市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對한修正動議案(孫馥 議員 發議)

(13時 21分)
○委員長 李喆鎬; 孫馥 議員께서 發議하신 修正案은 再請이 있으므로 正式議題로 成立이 되었습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1995年度 文化觀光局所管 및 敎育廳 轉出金에 대한 서울特別市 一般會計 歲入·歲出 豫算案에 대해서 孫馥 議員이 發議한 修正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執行部의 同意를 먼저 얻고자 합니다.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同意 與否 이외에 希望事項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喆鎬; 네, 말씀하세요.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포괄비 15億원을 削減을 해 버렸는데 그 중에 한 5億원 정도는 살려 주었으면 하고 아까 말씀을 올렸는데요.
○委員長 李喆鎬; 지금 執行部에서는 22億원을 17億 7,300萬원 정도 增額해서 통과시켜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委員님들께서 諒解를 해 주신다면 그것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喆鎬; 알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그 다음 圖書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님께서 要請하신 7億원 增額은 所管 局長이 同意를 합니다. 다만, 이것은 전체 總 所要豫算은 變動이 없고 96年 이후의 연차별 投資計劃은 여기에 따라서 變動이 미칠 것으로 이렇게 同意를 합니다.
○委員長 李喆鎬; 알겠습니다. 지금 執行部에서 말씀하신 것을 전폭적으로 受容해서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1995年度 文化觀光局所管 및 敎育廳 轉出金에 대한 서울特別市 一般會計 歲入·歲出 豫算案에 대해서 孫馥 議員이 發議한 修正案대로 執行部의 것을 포함시켜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孫馥 議員이 發議하신 修正案대로 可決되

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文化觀光局 關係公務員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을 위해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3時 26分 會議中止)
(14時 35分 繼續開議)

---

3. 1995年度世宗文化會館所管서울特別市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5年度 世宗文化會館所管 서울特別市 一般會計 歲入·歲出 豫算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世宗文化會館 館長 나오셔서 豫算案에 대해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世宗文化會館長 柳千秀; 油印物 95豫算現況과 提案說明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報告)
1995년도세종문화회관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

이상 報告드린 바와 같이 來年度 歲入·歲出豫算案은 市民 文化藝術에 대한 慾求를 充足시키고 世界的인 藝術의 殿堂으로서 機能을 維持하는데 必要한 최소한의 經費만을 計上하고

있는 점을 勘案하시어 原案대로 審議 通過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豫算案 提案設明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長虎; 지금부터 1995年度 서울特別市 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 中 世宗文化會館所管 事項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1995년도일반회계서울특별시세입·세출예산(안)중세종문화회관소관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원만한 審査進行과 執行部의 충실한 答辯準備를 위해서 一括質疑 後 잠시 停會한 다음 一括答辯을 듣는 順序로 審査를 進行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一括質疑 後 잠시 停會한 다음 一括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本件에 대해서 먼저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朴善童 委員 質問해 주세요.

○朴善童 委員; 朴善童 委員입니다.

예술단 보상금으로 支援 公演出演料 1億 2,200萬원과 團員外部出演料 2億원이 策定되어 있습니다. 95年에 支援公演과

團員 外部出演이 計劃된 行事와 94年에 支給된 補償金 內譯도 團體別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今年度 市立藝術團體가 外部 民間藝術團體에 出演하여 받은 謝禮費는 얼마나 되는지 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 孫馥 委員, 質問해 주세요.

○孫馥 委員; 孫馥 委員입니다.

施設補修費 中에서 레스토랑 補修工事事業 內容을 죽 살펴보았습니다. 水準 높은 休息 및 宴會空間 確保로 레스토랑의 面貌를 一新하기 위한 하나의 改補修 作業인데 우리가 세종홀을 1年 前에 他會社로 委託運營을 하면서 年間 豫想收益 2億 5,000萬원을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補修工事事業 內容을 보니까 建築 바닥補修하고 천정벽 하는데 1億 1,500萬원, 電氣工事가 5,000萬원, 機械工事가 4,000萬원 그래서 2億 4,100萬원의 豫算을 編成하셨는데 현재 이렇게 全面 工事를 해야지만 運營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그 동안에 補修工事가 없었으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旣存 現 施設로써 당장 運營이 어려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과연 우리가 委託해서 1年 동안 收益을 그래도 自立度를 높이기 위해서 2億 5,000萬원이라는 收益을 豫想하고 있는데 또 이만한 돈을 들여서, 물론 현재 施設로도 얼마나 좀 維持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水準 높은 休息空間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획기적인 그러한 補修工事인지 그 점을 말씀 좀 해 주시고, 資産取得費 中에서 大會議場 椅子購入이라든지 構內食堂 椅子 및 卓子購入, 이것은 構內食堂이니까 세종홀하고는 關係가 없겠지요. 또 携帶用 無電機購入, 모니터購入, 模寫電送機, 錄畵機, 冷藏庫, 輪轉謄寫機, TV 등 이렇게 해서 資産取得費가 있는데 사실 95年度

豫算을 보게 되면 우리 市 財政 형편상 緊縮豫算을 編成한 줄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당장 우리가 不要不急한 그러한 事業이 아니면 좀더 止揚하는 쪽으로 館長께서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部分에 대한 事業의 妥當性 與否를 館長께서는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 崔沆洛 委員, 質問해 주세요.

○崔沆洛 委員; 崔沆洛 委員입니다.

世宗文化會館은 每年 상당히 赤字를 면치 못하고 있고, 또 財政自立度가 상당히 빈약한데 계속 앞으로 市에서 돈만 갖다 쓸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財政自立度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方案에 대해서 說明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豫算을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增額되는 部分이 施設費인 것 같아요. 音響裝備라든가 舞臺照明裝備가 老朽되어서 交替를 해야 되겠다 하셨는데 30.7%나 增額이 되었습니다. 16億 6,700餘萬원 정도의 施設費가 策定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더 이상 質問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 李載震 委員, 質問해 주세요.

○李載震 委員; 李載震 委員입니다.

7-57페이지에 보면 特殊活動費 中에 公演業務推進活動費 1,200萬원을 策定했는데 公演業務推進活動費 하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어떠한 方法으로 使用할 것인가 그것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가 없으므로 이상의 質疑를 終結하고 執行部의 충실한 答辯準備를 위해서 잠시 停會를 宣布하겠습니다.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4時 56分 會議中止)

(15時 07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喆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계속해서 執行部의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世宗文化會館長, 答辯해 주시는데 너무 자세하게 說明을 하시지 말고 質問의 要點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答辯해 주세요.

○世宗文化會館長 柳千秀; 質問에 대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朴善童 委員님께서 藝術團體 補償金 1億 2,000萬원에 대한 內譯과 外部出演謝禮金 2億원에 대한 豫算의 內容을 물어주셨습니다.

저희 藝術團體補償金 1億 2,200萬원은 5個 專屬藝術團體가 年間 13回 公演에 따른 出演手當으로써 1人當 2萬 5,000원씩 團員 349名에 대해서 計上을 하니까 1億 2,000萬원이 됩니다. 이것은 定期公演 때 他 團體를 支援했을 때 支援하는 것이 13回 平均이 되어서 그렇게 計上한 것입니다. 그리고 2億원의 豫算은 8個 專屬藝術團體가 外部出演에 따른 出演料를 歲入措置를 하고 거기에 대한 補償金으로 支給한 것인데 歲出豫算을 한 20回 基準해서 策定을 했습니다. 이것은 92年度 이 시기에 支援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根據를 했습니다. 今年에 外部出演料는 11月 現在 4個 團體에서 여덟 분 公演

해 가지고 4,400萬원을 歲入으로, 그 內譯은 國樂이 600萬원, 合唱 340萬원, 交響樂團이 3,000萬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 저희들이 여기 計上에 조금 못 미쳤던 것은 저희들이 오페라공연이 藝術의 殿堂으로 전부 今年에 미루어졌기 때문에 오페라공연이 적어서 이런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來年에는 저희들이 오페라공연도 藝術의 殿堂과 나눠서 할 計劃이니까 아마 이 정도는 計上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朴善童 委員 質疑에 대한 答을 드렸습니다.

○朴善産 委員;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市支援 公演 出演料가 13個 公演 출연료라고 하는 것 같은데 外部出演料도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藝術團體間의 支援出演을 뜻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專門委員 報告에 의하면 藝術人들의 士氣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 일반 公務員보다, 거기에 대한 對策은 어떻게 講究하고 계신지 說明해 주십시오.

○世宗文化會館員 柳千秀; 첫 번째 質疑는 저희들이 自體 團體 以外에 他 團體를 支援해 줄 때 그 때만 2萬 5,000원씩 出演金으로 支給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藝術團員에 대한 士氣振作은 今年에 100%보너스를 增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出演手當 2萬 5,000원씩 計上했기 때문에 약 10% 정도 補償의 引上效果가 나온 그런 豫算입니다.

○朴善産 委員; 그러면 士氣가 좀 높아지겠습니까?

○世宗文化會館員 柳千秀; 이것이 朴委員님 10年前에 策定된 것이 100% 올랐기 때문에 그나마 고맙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朴善産 委員; 그러면 다행입니다.

○世宗文化會館員 柳千秀; 그 다음에 孫馥 委員님께서 施設補修費 中 레스토랑을 꼭 補修를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質問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78年 開館 이래 레스토랑은 그대로, 그러니까 그때 인테리어 그대로 이태리식 당시 우아하게 꾸며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히 젊은이들한테는 위압을 주는 친숙함을 못주는 그런 施設입니다. 한편 別個 區域인 세종홀은 昨年에 支援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補修를 깨끗이 했기 때문에 그것과 均衡을 맞추는 뜻도 있고, 또 레스토랑은 지금 政府 各 機關에서 호텔사용을 금하는 그런 施策 때문에 대부분 특히 外務部, 其他 中央部處에서 거기를 活用하고, 저희 市에서도 그것을 많이 活用하기 때문에 그 水準을 높여야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7年 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機械施設 等이 전부 老朽가 되어서 그것을 전면 補修를 하는 그런 費用으로 2億 몇 천을 計上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豫算을 節減하는 의미에서 아껴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孫馥 委員; 그 말씀이 政府 部處나 市에서 많이 利用한다고 해서 너무 호화스럽게 한다 제가 듣기에는 그런 말씀 같으신데, 일반 레스토랑처럼 꼭 호텔수준을 능가하는 그런 施設로까지는 할 必要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호텔보다도 그래도 費用이 節減되는, 單價나 뭐가 좀 낮지 않습니까?

○世宗文化會館長 柳千秀; 孫委員님, 제가 施設部分에서만 그랬는데 앞으로 運營部分에서는 …….

○孫馥 委員; 運營部分에서도 지금 메뉴금액이 낮지 않습니까?

○世宗文化會館長 柳千秀; 조금 낮은데 사실은 저희 公演場 出入觀客한테는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양정식으로 그것을 運營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래서 저것을 施設補修를 다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관객들이 많이 活用하는 그런 業種으로 轉換코자…….

○孫馥 委員; 그러니까 당장 老朽된 부분은 補修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꼭 너무 水準높은 호화스러운 그런 施設보다는 조금 施設費를 아껴서라도 체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施設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豫算을 좀더 節減하자는 그런 次元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꼭 施設補修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世宗文化會館長 柳千秀; 알겠습니다. 孫委員님 그 單價가 아주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은 額數인데 어쨌든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孫馥 委員님께서 資産取得費 中 緊縮豫算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필요하느냐 하는 그런 質問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資産取得費 內譯을 說明을 드리면 저희들 資料 7페이지에 있는데 무선마이크 시스템이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8個 채널을 購入하고, 저희 파이프오르간을 今年에는 한 20餘 回 쓰는데 파이프오르간 그 2層에 올라가서 할 때도 있고 舞臺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舞臺할 때 운반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1,200萬원, 그 다음에 特殊音響 效果를 저희들이 노리기 위해서 1,500萬원, 그 다음에 特殊映像을 하는 비디오 프로젝트 購入에 저희들이 2,500萬원, 조명효과기 안개 같은 것을 뿜어주는 그것에 1,100萬원, 그 다음에 휴대용 무전기는 저희 스텝끼리 저희 公演中에 서로 긴급연락해야 하기 때문에 500萬원, 그 다음에 모니터구입비 400萬원 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職員 構內食堂은 그것이 지금 構內食堂用이 아니라 大會議場

의자를 저희들이 年間 20個씩 이렇게 交替를 합니다. 끝부분에 3,400萬원, 의자와 탁자 등 기타, 그것은 年次 計劃으로 저희들이 20個씩 購入하는 그것이 포함된 額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運營하다가 필요한 최소한의 裝備購入 그런 內容이 되겠습니다.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沆洛 委員님께서 財政自立度 提高方案을 劃期的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격려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今年에 公演收入을 올리기 위해서 몇 가지 特殊事業을 현재 기획하고 있습니다. 파리에 가 있는 정명훈과 같이 하는 特別企劃公演 交響樂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億원 정도의 收入을 計上하고 있고, 그리고 11月에 世界的인 첼리스트인 요요마를 초청해서 거기에서도 한 6,000餘萬원 저희들이 公演收入을 올리고자 하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委員님들께서 勸誘해 주셨던 言論社의 提携는 저희들이 MBC와 봄에 어린이뮤지컬, 그리고 朝鮮日報와 가을에 歌曲祭, 그리고 東亞日報와 여름에 國樂해 가지고 여기서 한 3億원 정도를 더 올리고자 하는 그런 計劃도 있습니다.

현재 貸館公演은 저희들이 주간에, 夜間公演에 방해되지 않는 주간에 各種 行事도 유치를 하고 또 今年에는 600年事業 때문에 저희들이 展示場 貸館에 좀 蹉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來年에는 이것을 用意周到하게 해 가지고 목표한 歲入을 達成할 그런 計劃이며 附帶施設은 저희들이 지금 來年에 한 2億 5,000萬원 세종홀에서 計上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趨勢 같아서는 上廻達成할 그런 計劃으로 해서, 어쨌든 公演과 貸館 그리고 附帶施設을 충분히 活用해서 自立度 提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諒解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施設費가 30.6%가 增額이 되었는데 그 事由를 說明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公演裝備가 78年 設置이래 長期間 使用으로 施設이 老朽되어서 年次的으로 지금 改良하고 있습니다.

즉, 91年부터 改良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公演의 中斷事故가 예상되는 것은 예비적으로 그 裝備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個年計劃 동안에 91年度 1次年度는 豫算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 동안에 미루다가 來年에 5次 計劃을 완전히 해서 公演 設備에 대한 交替를 마감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아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李載震 委員님 質疑에 대한 答을 드리겠습니다.

95年度 新設된 舞臺公演 進行費 1,200萬원은 저희들이 綜合構成物을 公演할 때는 스텝들간에 會議를 여러 차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천, 합판 등 各種 消耗品에 드는 費用이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各種 消耗品 問題로 公演團體들간에 서로 마찰이 있고 그래서 月 한 100萬원씩 計算해 가지고 스텝들 綜合公演 運營하는데 필요한 經費를 計算한 額數입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1995年度 世宗文化會館所管 서울特別市 一般會計 歲入·歲出 豫算案에 대해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崔沆洛 委員, 異議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崔沆洛 委員; 崔沆洛 委員입니다.

世宗文化會館 95年度 豫算을 檢討해 본 결과 事業所運營 資産取得費 中 構內食堂 의자 및 탁자 購入費 600萬원과 모니터 購入費 400萬원을 削減하고, 事業所運營 施設費 中 레스토랑 施設 補修費 2億 4,100萬원 중 4,000萬원을 削減하여 總 5,000萬원을 削減해서 豫備費로 計上하고 나머지 部分을 原案대로 可決할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李喆鎬; 崔沆洛 委員께서 原案에 대해서 事業所運營 資産取得費 中 구내식당 의자 및 탁자 購入 600萬원, 모니터 購入 400萬원, 事業所運營 施設費 中 레스토랑 施設補修 2億 4,100萬원 중 4,000萬원을 削減해서 總 5,000億원을 豫備費로 計上하고 나머지 여타 부분은 原案대로 可決할 것을 修正案을 發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再請하십니까?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崔沆洛 委員께서 發議하신 修正案은 再請이 있으므로 正式議題로 成立이 되었습니다.

(議事棒 3打)

---

4. 1995年度世宗文化會館所管서울特別市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對한修正動議案(崔沆洛 議員 發議)

(15時 25分)

○委員長 李喆鎬; 執行部에서 지금 崔沆洛 議員의 修正案에 대해서 受容하시겠습니까?

○世宗文化會館長 柳千秀; 네.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1995年度 世宗文化會館所管 서울特別市一般會計 歲入·歲出 豫算은 崔沆

洛 議員이 發議한 修正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崔沆洛 議員이 發議하신 修正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世宗文化會館 關係公務員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5. 1994年度서울特別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5時 27分)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1994年度 서울特別市 敎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委員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敎育廳 關係公務員이 豫算案 提案說明을 油印物로 대치하고 그리고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朴善童 委員; 要旨 說明은 執行部에서 해야죠.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說明하시는데 油印物로 대치하고 가장 要點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鎭成; 企劃管理室長 金鎭成입니다. 1994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內譯을 간단히 說明을 올리

겠습니다.

……

(報告)

1994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

이상 간단히 說明드렸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長虎; 專門委員입니다.

지금부터 1994年度 서울特別市 敎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檢討報告드리겠습니다.

……

(報告)

1994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案件의 性質上 質疑答辯은 一問一答式으로 審査를 進行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異議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件에 대해서 먼저 質問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質疑와 答辯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敎育監이 提出한 1994年度서울特別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6. 1995年度서울特別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5時 38分)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1995年度서울特別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敎育廳 關係公務員은 나오셔서 豫算案에 대해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要點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鎭成; 企劃管理室長 金鎭成입니다.

1995年度서울特別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하여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

(報告)

1995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長虎; 專門委員입니다. 지금부터 1995年度 서

울特別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1995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원만한 審査進行과 執行部의 충실한 答辯을 듣기 위해서 一括質疑 後 잠시 停會한 다음 一括答辯을 듣는 순서로 審査를 進行할까 합니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一括質疑 後 잠시 停會한 다음 一括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本 件에 대해서 먼저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孫馥 委員님, 質問해 주세요.

○孫馥 委員; 孫馥 委員입니다.

서울市敎育廳 95年度 豫算案을 審査하면서 2兆원이 넘는 敎育豫算을 部分別로 把握해 보니까 어느 한 分野는 다소 열악한 財政으로 判斷이 되고, 또 어느 한 分野는 每年 增減要因이 發生되어서 과연 앞으로의 敎育財政에 큰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豫想하면서 몇 가지 政策的인 豫算審議 事項을 質問하겠습니다.

먼저 監査 때도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만 학교신설에 관한 事項입니다. 95學年度에도 國民學校 8個, 中學校 2개교를 포함해서 1,033億원과 182億원 이렇게 해서 큰 豫算이 所要되

는데 지난번처럼 敎育需要의 發生根據地는 敎育當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敎育政策이 꼭 一般 國家政府나 市政府에서 執行하는 대로 매달려 따라가야만 되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擧論조차 안하고 계속 열악한 敎育財政을 하시고 계속 이 事業을 決定하다 보면 敎育은 어디로 가고, 만날 지반설계 하다 보니까 敎育의 質을 높이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問題도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 마음 같아서는 어느 한 個 年度라도 學校施設을 일단 중단하고 그에 따르는 敎育에 어려움을 地方政府나 中央政府가 알아 가지고 과연 國民이나 市民이 이러한 敎育環境을 理解할 수 있도록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政策에 어떤 方向提示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敎育廳 當局에서는 항상 新市街地가 開發되면 어디 가서 또 學校를 지어야 될까하고 우리가 찾아다니는 그런 입장입니다. 땅도 주지도 않고. 이러한 어려운 敎育政策을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地方政府나 또는 中央政府에서 어떤 都市開發이나 敎育需要가 급격히 增加하는 그런 分野에 대해서는 물론 95年度 豫算上에는 이렇게 學效需要가 必要하다고 지금 事業計劃을 세워놓았습니다만 한번은 꼭 中央政府나 어디에다가 꼭 建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來年度 新設하는 이 10個 校에 대해서 來年에 敎育需要가 과연 아파트입주로 인해 가지고 發生이 100%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答辯을 좀 해 주시고.

高等學校 再配置事業을 물론 學校再配置 事業으로 계속 推進해서 執行한다고 했습니다만 혜화여고 移轉事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現 學校位置로 보나 뭐로 봤

을 때는 당연히 移轉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移轉計劃을 세웠습니다만 종로구 惠化洞에 지금 현재 所在하고 있는데 이것을 道峰區 水踰洞으로 移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旣存 學校敷地를 청산하고 새로운 데로 이사가려니까 追加費用이 한 221億원 들어요. 제가 監査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단지 안에 꼭 도보거리로 해가지고 國民學生이고, 中學生이고 통학거리를 도보거리로만 해야 된다는 그런 法的 條項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금 高等學校입니다. 高等學校 같으면 여기 再配置한 理由를 보니까 원거리 通學으로 인해서 通學에 불편을 느껴서 學校를 再配置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施設도 굉장히 50年 이상된 學校建物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高等學生 정도라면 좀 통학거리를 두더라도 현재 이 旣存學校를 賣却하여 他 學校用地를 잡아서 가려니까 막대한 財政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물론 이 學校뿐만 아니고 또 앞으로 닥쳐올 이러한 學校再配置 關係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政策的인 決定이라든가 그 事業의 必要性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4年度 移越된 施設學校가 있습니다. 물론 移越된 學校는 고의로 移越시킨 것은 아니겠죠. 土地買入이라든가, 무슨 設計라든가 遲延되어서 어떠한 事由로 인해서 移越되었는데 이 移越된 學校에 대해서 當初 設計를 벗어나서 施設 現代化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追加로 國民學校 6個 學校에 63億 1,100萬원이 또 施設費가 計上이 되었습니다.

새로이 學校를 新築하려면 물론 近代的이고 未來志向的인 그런 측면에서 종전보다 建築單價를 높이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旣已 設計된 學校 建築을 다시 또 現代化를 이용한,

建築金額을 높여 가지고 調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95學年度 敎育環境改善事業費 중에서 학생사물함 設置가 있습니다.

總 9個 區廳에 設置費 30億원을 計上하였는데 학생사물함 하면 물론 國民學校 學生들을 對象으로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새로이 新設되는 學校에 한해서는 사물함을 旣已 設計에다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學校施設도 老朽되고 또 종전처럼 多目的된 敎室도 없는데 사물함을 어떠한 模型으로 만들어서 敎室에다 配置할 것인가.

제가 몇 年 前에 學校育成會長을 4年間을 지내오면서 학생사물함을 몇 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무로 만드니까 學生들이 장난이 심해서 금방 부서지고 鐵製로 만드니까 事故도 많이 나고 이러한 어려운 經驗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段階的으로 사물함을 全體學校 敎室數別로 다 設置하려면 앞으로 큰 엄청난 돈입니다.

本委員은 이제 給食學校를 만들어서 도시락도 안 싸 가지고 다니고, 또 모든 學校敎育이 現場敎育으로 인해서 종전처럼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學校에 다니고 그러한 형편이 아닐텐데 부득이 또 國民學生들에게 이러한 사물함 設置를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은 敎育環境改善이라기 보다는 좀더 側面을 달리합니다만 再考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側面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敎育政策의 소신있는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 朴善童 委員, 質問해 주세요.

○朴善童 委員; 朴善童 委員입니다.

95年度 私學支援費는 今年에 비해 約 8億 3,000萬원이 인상된 約 1,599億원입니다. 私學支援費는 人件費와 運營費로 나누어 中·高等學校에 支援하고 있지만 中學校보다는 高等學校가 형편이 좋고 實業系보다는 人文系 高等學校가 財政運營의 幅이 넓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來年度에는 授業料가 대폭적으로 인상되어 자체적으로 豫算編成하는 人文系 私立高等學校에서는 그만큼 財政運營의 幅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므로 財政缺陷補助金과 敎育環境改善費로 나누어 支援하는 財政 支援을 人文系 私立學校만은 財政缺陷補助金만 支援하는 것이 正當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인데 關係者의 見解를 말씀해 주시고,

使用料 및 手數料 收入이 今年보다 約 13億원이 減少되었습니다. 編成基準을 보면 受益者 負擔經費 現實化 推進이라는 說明으로 보아 收益이 增大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收入이 減少된 이유를 說明해 주시고,

또 서울大公園 靑少年修練場 內에 管理棟이 建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 金寅東 委員, 質問해 주세요.

○金寅東 委員; 우리 서울市 敎育廳이 여러 가지 어려운 財政與件下에서 學校敎育을 위해서 盡力하시는 데 대해서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市 敎育廳이 2兆에 달하는 막대한 豫算을 運營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의존적인 財源下에서 지금 國庫支援이나 아니면 市의 轉入金, 市의 轉入金만 해도 지금 全體 豫算

의 20%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追更에서 차질이 됐던 問題는 앞으로 精算處理로 處理한다 해서 우선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與件下에 있습니다.

投資可用財源은 아주 부족한데 아직도 여러 면에서 豫算節減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同僚委員들이 여러 가지 指摘을 하셨습니다만 健康管理事業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本委員이 꾸준하게 改善을 요구한 결과 診療機能을 縮小를 하고 健康管理事業으로 일대 전환을 하신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意志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 疑問이 있는데 附屬委員會 運營이 昨年에 13億원이었는데 今年度 豫算編成에는 하나도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配置됐던 기존 人力이나 이런 裝備들은 어떻게 活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고요.

事項別 說明書에 보면 學校健康管理所 運營에 있어서 成人病 檢査事業을 昨年度부터 廢止했습니다만 95年度에는 學生 및 敎職員 健康管理事業을 新規事業으로 그렇게 計上을 했어요.

그런데 本委員이 항상 疑問이 되는 것은 對象 選定에 있어서 막연해요. 전체 學生을 對象으로 할 것이냐, 對象 問題를 標本抽出 할 것이냐.

막연히 그냥 國校生 중 希望者, 무슨 中校生 중 希望者 이런 식으로 전부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과연 調査라든지, 또 豫防接種이라든지, 檢査라든지 할 때에 과연 效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또 그것이 공통성을 發見해 낼 수 있는 그러한 裝置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疑問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對象에 있어서 상당히 아주 황당무계한 듯한 그러한 內容이 있어서 이 問題가 問題이고, 또 이에 대해서 健康管理事業을 新規事業으로 計上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健康管理事業所의 學生肝炎檢査를 했는데 今年에는 갑자기 增額이 됐어요. 그래서 1億 8,400萬원이나 增額 計上이 되었는데 增額된 사유는 무엇인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런 여러 가지 檢査關係로 해서 新規事業으로 되는 경우에는 어김없이 業務用 車輛을 전부 購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現在 敎育廳 내지는 우리 健康管理事業所에서 保有하고 있는 車輛이 몇 臺이고, 앞으로 보면 豫算上에 今年에 檢査關係로 해서 두 臺를 購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 車輛은 어떤 車輛이며, 어떤 機能을 하고 있으며, 새로 購入하는 車輛은 단순히 사람만을 나르는 것이냐, 10人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特殊性이 있는 車輛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健康管理事業所 運營은 新規事業으로 했는데 이것은 保健所 등에서 機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保健所에서 해도 충분히 하는 것을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물론 다 찾아가서 한다고 하는데 찾아가서 할 때도 希望者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檢診을 한다든지 하면 家族끼리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對象者를 學生으로만 했을 때에 父母들이 따라오는 것이냐, 아니면 어쨌든 父母도 참여할텐데, 그런 여러 가지 問題들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保健所에서도 할 수 있는 問題를 왜 자꾸만 敎育廳에서 健康管理事業所에서 하려고 그러느냐. 아까도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열악한 財政與件이지 않습니까? 과감히 節減하겠다는 노력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昨年에 비해서 다소 健康管理事業所에 한 10億원 정도가 줄었죠?

○社會敎育體育局長 李奭雨; 네.

○金寅東 委員; 그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력만 하면 더 節減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質疑를 終結하고 執行部의 충실한 答辯準備를 위해서 잠시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35分 會議中止)

(16時 42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喆鎬; 座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繼續해서 執行部의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關係公務員은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敎育體育局長 李奭雨; 社會敎育體育局長 李奭雨입니다.

먼저 朴善童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서울大公園 管理棟을 建築했느냐고 質疑를 하셨습니다.

서울大公園은 우리가 無償使用을 하고 있는 立場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市 땅이기 때문에 建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狀況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事務室로 放送施設이라든가 醫務室, 宿直室을 서울市 것을 臨時 使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善童 委員; 그러면 管理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하고 계신 것인지?

○社會敎育體育局長 李奭雨; 管理는 지금 서울市 建物을 使用해 가지고 현재는 별 큰 支障은 없습니다.

○朴善童 委員;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豫算을 주어서 管理棟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社會敎育體育局長 李奭雨; 네,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서울大公園을 無償賃貸로 서울市하고 契約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전용으로 使用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建物도 지을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立場입니다.

○朴善童 委員; 네, 알겠습니다.

○社會敎育體育局長 李奭雨; 그 다음에 金寅東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內容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附屬醫院 醫療陣과 裝備의 活用方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종전에는 診療爲主에서 檢診爲主로 돌아가기 때문에 醫師가 남고 그 동안에 쓰던 裝備에 대해서 사실 檢討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內科에서 쓰던 醫師라든가 裝備는 敎職員 成人病 管理 및 診療에 活用할 수가 있고, 또 特殊學校 身體檢査라든가 醫療支援事業에 活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小兒科 分野에서 쓰던 人員과 裝備는 學生 一般診療와 小兒成人病 管理事業과 特殊學校 身體檢査 및 醫療支援에 活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外科 分野에서는 學生 및 敎職員의 一般診療, 골다공증 豫防事業, 學生 척추만곡증 管理라든가 이런 事業으로 轉換할 수가 있고, 齒科는 學生, 敎職員 口腔相談이라든가 치아, 열구전색, 치석제거 등 齒科部分으로 活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綜合檢査裝備는 방사성 檢査라든가 초음파 檢査 및 判讀, 유방암 檢査 및 判讀으로 活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檢討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新規事業을 推進할 때마다 車輛을 자꾸 사는데 그 車輛이 현재 얼마나 있고, 왜 또 사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學校健康管理所의 車輛이 6臺가 保有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베스타 9인승으로써 一般事務管理로 현재 學校機關運營으로 해서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코란도 5인승, 그리고 베스타 救急事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臺가 있고, 또 X선 撮影機가 附着된 檢診버스 3臺, 이렇게 해 가지고 6臺를 活用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結核檢診만 하더라도 對象이 27萬 名이 되어 가지고 中·高等學校 1學年을 全體的으로 하고 있는데 이 3臺 가지고도 상당히 모자라서 계속 負擔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內科, 外科라든가 이런 정신과가 없어지는 대신에 特殊學校 16個校와 特殊地 31個校에 대한 診療를 새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 베스타 12人乘을 하나 더 사려고 하고, 그 다음에 細菌檢査 745校, 衛生指導 및 敎育 186校 年4回, 이런 식으로 追加 事業이 確定이 되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르는 12人乘 베스타를 사려고 計劃을 한 것입니다.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學生 肝炎檢査에서 1億 8,000萬원으로 5,400萬원이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5,400萬원이 追加되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學生 肝炎檢査를 하는데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最新機械裝備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B형 自動肝炎檢査機 購入이 7,800萬원이 追加所要가 되기 때문에 昨年에 1億 3,000萬원이었던 것이 今年에 1億 8,400萬원으로 약 5,400萬원이 늘었습니다만 裝備購入費가 7,800萬원이 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日傭雜給이라든가 旅費라든가 이런 것이 일부 줄었기 때문에 부득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特殊學校하고 特殊地 學校에 대한 診療는 保健所에 맡겨도 되는데 왜 구태여 學校健康管理所에서 하려고 하느냐, 대폭적으로 改善할 意向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特殊學校라든가 特殊地 學校의 學生들이라는 것은 대개 다 擧動이 부자연스럽고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운 立場이기 때문에 부득이 가서 고쳐주어야 되는 그런 立場에 있습니다. 그래서 一般 保健所에서 일일이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현재 與件上으로 어려운 것 같고, 또 우리가 직접 專擔으로서 診療를 해 주어야 그 이상의 성의도 나오고, 또 經費도 덜 들어가고 이러한 여러가지 長點이 있어 가지고 特殊學校도 저희가 診療하는 方向으로 政策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對象選定이 상당히 애매한데 어떻게 對象選定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法定 傳染病인 結核에 있어서는 서울市內 全中學校 1學年 全體 學生을 對象으로 巡廻檢診을 합니다. 그

리고 高等學校 1學年 全體 學生을 對象으로 巡廻檢診을 하기 때문에 每年 中學校 1學年, 高等學校 1學年을 하게 되면 그 애들이 결국 3年 동안에 언젠가는 한번 檢査를 하기 때문에 全 學生이 檢診을 하게 되는 이런 利點이 있습니다.

그리고 國民學校 學生 小便檢査도 5學年, 中學校는 2學年, 高等學校도 2學年 全體를 對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小便檢査를 해 가지고 신장이라든가 당이라든가 慢性疾患을 檢出해 내는 그런 檢査인데 결국 이 學生들도 卒業할 때까지 한번은 누구든지 檢診할 수 있는 이런 制度를 취해 가지고 全體學生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診療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B형 肝炎檢査나 小兒成人病 檢査 같은 것은 사실 希望者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놓아두게 되면 대부분의 學父兄들이 保健所를 간다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꺼려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診療成績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 가지고 學校에다가 申請을 받고, 또 學父兄들에게 직접 이것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나가야지만 B형 肝炎이라든가 小兒成人病이라는 것은 지금 모든 成人들의 病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 가지고, 비만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成人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深化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반드시 이것을 診療해 주어야 된다는 重要性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이것을 擔當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初等敎育局長 徐成玉; 初等敎育局長 徐成玉입니다.

孫馥 委員님께서 敎育廳 財源이 不足한데 學生 사물함 設置가 꼭 必要하냐,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 設置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學生사물함은 어린 國民學校 學生들이 登下校할 때 무거운 책가방과 學用品 그리고 신발주머니를 들어주는 것이며, 敎科書 중심으로 實施되는 암기식 敎育을 調査發表學習, 資料利用學習, 造形工作 등 學生 활동적인 授業으로 바꾸는데 큰 貢獻을 하는 것입니다.

사물함에는 學生들이 가지고 다니는 敎科書와 各種 參考書, 工作資料와 크레파스 및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기구, 體育服과 室內靴 등을 언제나 넣어두고 使用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물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差異는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學生들에게 整理整頓하는 習慣을 기르고 깨끗한 수업분위기를 造成하는데도 매우 必要합니다.

國民學校 現場에서의 敎師들의 要請이 매우 큰 것이 사물함입니다.

현재 사물함을 設置한 學校도 24%가 됩니다만 全校 全 學級을 設置하려고 하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敎育廳에서 5個年 計劃으로 단계적으로 施設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물함의 規格과 材質은 學校에 맞게 施設하도록 그렇게 學校校長에게 一任하는데 몇 가지 見本을 提供하는 것은 必要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95年度부터는 전국적으로 사물함 設置가 强調되는 그런 雰圍氣인데 우리 서울의 國民學校도 빠지지 않도록 여러 委員님의 넓으신 배려를 仰請드리면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管理局長 柳根夏; 管理局長 柳根夏입니다.

먼저 孫馥 委員님께서 來年度 國民學校, 中學校 新設學校에 대한 入住時期가 언제냐고 質問하셨습니다.

入住時期를 學校別로 말씀드리면 東部管內 동화國民學校는

96年 2月, 구남國民學校의 경우는 96年 2月, 그 다음에 南部地域의 금산國民學校 이것은 96年 3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南部의 개웅國民學校는 95年 1月, 그 다음에 北部의 연월國民學校는 95年 12月, 江東의 가주國民學校는 96年 2月이 되겠고, 江西의 염동國民學校는 96年 2月, 東部의 중목國民學校는 97年 2月이 되겠습니다.

이 중목國民學校의 경우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이 位置는 私立國民學校인 금성國民學校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성國民學校를 新內地區로 移轉을 시켜 주고, 그 位置를 저희 敎育廳에서 땅을 買入해 가지고 學校建物을 새로 지어서 그 地域에 過重되고 있는 2部制 授業의 解消와 過大規模 學校의 分離收容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40學級 이상을 수용할 計劃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學校가 이사간 다음에 또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97年 2月頃이 豫定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質問하신 高校再配置와 關聯해서 혜화여고 移轉에 대해서 이것을 꼭 이렇게 할 必要가 있느냐 하는 質問을 하셨습니다.

혜화여고의 경우는 현재 學生의 75%가 城北區 내지 道峰區 學生들이 配定이 되어서 通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地域은 혜화여고 뿐만 아니라 경동고등학교의 경우도 지금 學生이 많이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쪽 學生들이 많이 配定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혜화여고를 移轉해서 學生들의 通學便宜를 덜어주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移轉하고자 하는 位置가 7,500坪이 됩니다. 그래서 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혜화여고에서 移轉할 경우 한 5,000坪 정도를 쓰고 나머지 2,500坪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施設이 不足해서 지금 취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特殊敎

育 施設擴充을 해서 特殊學校를 거기에다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豫算은 355億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特殊學校施設費 土地買入費 및 建築費 約 150億원 정도를 뺀다면 실제 혜화여고가 移轉하는데는 約 200億원 정도가 所要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혜화여고 자리는 원래가 혜화국민학교 자리입니다. 그래서 혜화국민학교가 현재 산 언덕위에 올라가 있는데 혜화국민학교를 원 位置로 옮겨주고 현재 혜화고등학교 위치 存在하고 있는 그 터를 저희들이 處分해서 移轉費에 충당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理解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94年 移越된 學校新設費에 있어서 施設現代化라는 미명하에 今年度보다 豫算을 63億원이나 增額을 시켜놓고 있는데 이것은 가뜩이나 敎育財政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妥當性이 缺如된 事項이 아니냐 그런 質問을 하셨습니다.

學校施設 現代化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敷衍說明을 드리면 우리의 初·中·高는 大韓民國 어디를 가나 解放後에 지은 建物들은 建設部에서 制定한 標準設計圖를 適用해서 지금까지 學校를 지어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學校建物에 모양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대에 뒤떨어진 建物에서 學生이 공부를 하고 있다 하는 側面, 또 현관이 좁고, 또 敎室이 아주 틀에 박혀 있는 敎室이기 때문에 活用度 면에서 저하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敎育의 質向上에도 問題가 提起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昨年부터 施設現代化 즉, 施設現代化라는 것은 저희들이 標準設計圖는 設計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昨年부터 저희들이 學校를 짓는데 있어서도 設計用役을 외주에 줘서 納品된 設計圖書에 의해서

學校를 建築하게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構造物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設計費가 所要되고 또한 使用되는 資材도 상당히 다양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標準設計圖 作成할 경우에는 이 敎室天井에 이런 텍스설치를 안했습니다. 또 교실바닥도 인조석 깔기를 했는데 지금은 인조석 깔기를 하지 않고 新設學校의 경우에는 전부 텍스를 깔아주고 있습니다. 또 複道도 인조석 깔기를 하지 않고 國民學校의 경우에 있어서는 마루, 中·高等學校에 있어서는 테라조를 깔아서 여러 가지 建物의 미관도 向上시키지만 使用活用面에서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判斷下에서 저희들이 施設現代化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建築을 하게 된 것이지, 반드시 施設現代化가 建物을 남다르게 특이하게 지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巷間에 지금 論議가 되고 있는 지난번 市議會에서도 本會議에서 質疑가 나왔습니다만 불암국민학교의 경우와 같은 學校施設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敎育部의 勸奬事項으로써 시범케이스로 지었기 때문에 管理上에 問題點, 즉 管理費가 더 들어간다는 短點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設計를 해서 짓되 우리가 學生들의 使用에 불편이 없고 敎職員들도 여러 가지 活用面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施設現代化라는 이름을 붙여서 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95年度 給食學校 關係는 빼겠습니다. 사물함 設置費는 初等에서 答辯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朴善童 委員님께서 私立學校 支援費가 中學校보다는 高等學校가 더 들어가고, 高等學校에서는 人文系 高等學校가

實業系 高等學校보다 支援이 덜 될 수 있고 또 與件이 나은데 人文系 高等學校에서는 補助金을 削減할 用意는 없느냐고 質問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今年度에 私立中·高等學校에 주는 支援金이 2,082億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私立學校에서 받아들이는 入學金 授業料 플러스 財團의 轉入金, 其他 資産收入 等으로 豫算을 編成하는데 모자라는 돈을 저희들이 대주고 있는 돈입니다. 中學校는 113校가 있는데 全額 支援받고 있고, 高等學校 경우는 191個校 중에서 今年의 경우 161個校가 補助金을 깎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補助金 中에서 高等學校 경우는 대부분이 人文系 高等學校 경우에 約 965億원이 나가고, 實業系 高等學校는 學校數가 적기 때문에 約 306億원 정도가 지금 支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똑같이 運營費 내지 人件費 不足額을 주는 것이고 또 이런 주는 目的이 學校敎育이 正常的으로 이루어져서 學生들이 損害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敎育活動의 正常化를 위해서 支援되는 金額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들이 委員님 말씀은 妥當性이 있다고 인정됩니다만 저희들 支援하는 입장에서는 差等支援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왜 使用料 手數料 金額이 今年보다 줄었느냐, 이것은 말씀드리면 今年에 豫算은 51億원입니다. 그래서 來年度 경우에는 今年보다 13億원이 減額된 38億원으로 策定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健康管理所의 事業이 轉換되고 縮小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學生들로부터 받는,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手數料, 이런 것이 約 13億원이 減額되기 때문에 그 연유로 인해서 今年보다 來年에 13億원이 減少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補充質問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가 없으므로 質疑와 答辯을 終結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敎育監이 提出한 1995年度 서울特別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해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朴善童 委員; 있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朴善童 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善童 委員; 朴善童 委員입니다.
1995年度서울特別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審議한바 學校健康管理事業所 運營費에 대하여 學生 및 敎職員 健康管理事業 中 材料費 2億 6,040萬 4,000원중 1億 5,000萬원을 削減하고, 醫療費 1億 800萬원 중 5,000萬원을 削減하고, 日傭雜給 1,752萬 5,000원 중 1,000萬원을 削減하고 車輛費 950萬원을 削減하고, 健康資料發刊事業 中 2,720萬원을 削減하며, 總 2億 4,670萬원을 削減하여 豫備費로 計上하고 나머지 여타 부분은 原案대로 可決할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李喆鎬; 朴善童 委員께서 原案에 대해서 學生 및 敎職員 健康管理事業 中 材料費 2億 6,040萬원 중 1億 5,000萬원을 削減하고, 醫療費 1億 800萬원 중 5,000萬원을 削減하고, 日傭雜給 1,700萬원 중 1,000萬원을 削減하고, 車輛費 950萬원을 削減하고, 健康資料發刊事業 中 2,700萬원을 削減해서 總 2億 4,600萬원을 削減해서 豫備費로 計上하고, 나머지 여타부분을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 修正案을 發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再請합니까?
(「再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

7. 1995年度서울特別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對한 修正動議案(朴善童 議員 發議)

○委員長 李喆鎬; 朴善童 議員께서 發議하신 修正案은 再請이 있으므로 正式議題로 成立되었습니다.
(議事棒 3打)
執行部에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朴善童 議員께서 修正案을 냈습니다. 이것을 수긍하겠습니까?
○社會敎育體育局長 李奭雨; 社會敎育體育局長 李奭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材料費라든가, 醫療費를 材料費 1億 5,000萬원하고 醫療費 5,000萬원이 포함되었습니다만 이것을 削減하게 되면 學校健康管理所가 완전히 機能이 정지가 됩니다. 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車輛購入費라든가, 日傭雜給은 저희가 理解가 되겠습니다만 材料費하고 醫療費는 諒解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봐 주셔야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昨年보다 約 10億원을 갖다가 議會에서 여러번 말씀하셔 가지고 스스로 우리가 상당히 최대한의 削減을 해가지고 調整을 한 豫算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깎으시게 되면 정말 95年度에는 우리가 業務를 할 일이 없게 되는 그런 立場에 있기 때문에 그것 두 개는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이것에 대한 調整을 위해서 잠시동안 停會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7時 08分 會議中止)
(17時 22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喆鎬;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아까 朴善童 議員이 發議한 修正案에 대해서 執行部에서 異議를 신청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法條文에 보면 費目을 新設하거나 增額 주지 않는 事項은 執行部의 同意 없이 우리가 그대로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 요즘에 敎育廳의 財政이 상당히 빈약하고 열악한 상태 아래에서 모든 熱意를 다하고 있는 것에 고무됐기 때문에 우리 朴善童 議員께서 諒解를 해 주신다면 修正案에 대해서 材料費, 醫療費 도합 2億원을 還元시키고 600萬원만을 修正案으로 해서 議決하고자 하는데 諒解를 해 주시겠습니까?
○朴善童 議員; 네, 諒解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고맙습니다. 諒解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委員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朴善童 議員이 發議하신 修正案에서 材料費와 醫療費 2億원을 控除하고 4,670萬원만을 削減한 修正案으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정말 長時間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7時 24分 散會)

○出席委員

李喆鎬　蘇中天　金寅東　朴善童

孫馥　　梁元模　李永輔　車奉五

崔沆洛　李載震

○專門委員

金長虎

○出席公務員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世宗文化會館長　　柳千秀

서울特別市敎育廳

企劃管理室長　　金鎭成

初等敎育局長　　徐成玉

社會敎育體育局長　李奭雨